비교문화연구 제 8 집 1 호, (2002) pp.61-136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일본식민주의, 식민주의 인류학, 전쟁, 대만, 조선

植民과 戰爭의 日帝人類學[1)]
— 臺北帝大와 京城帝大의 人脈과 活動을 중심으로 —

전경수*

1. 序: 왜?

學史를 공부하는 理由, 特히 인류학 분야에서 독립적인 하나의 하위분야를 만들어가고 있는 '植民主義와 人類學'의 關係에 關聯된 問題를 생각하는 理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 하나의 개별 학문이 진행되어오는 과정은 학자들의 업적을 일별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적과 관련된 시대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기를 요구한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학자들이 학문적인 입장을 어떻게 수구하고 발전시켰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조명하게 된다.

比較的 自由스럽게 事實(歷史) 또는 事實이라고 생각되는 것들(記憶)을 發說할 수 있는 時代에 살게된 것을 나는 幸福하게 생각한다. 沈默과 捏造 그리고 隱蔽를 强要받았던 先學들을 同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시대적 배경이라고 이름한다. 이 상황이라는 것 때문

* 서울大 人類學科

1) 이 연구는 2000-2001년도 서울대학교 두뇌 한국 21 사업 대학교육개혁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This was supported by the Grant for Reform of University Education under BK21 Project of S.N.U)

에, 정치와 학문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抑壓으로 因해서 犧牲을 당했고, 沈默으로 因한 疑惑의 눈초리에 의해서 再犧牲을 당한 先學들의 名譽回復을 爲한 唯一한 길은 歷史와 記憶을 動員한 事實確認 過程에 있으며, 그 過程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지워진 責任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問題를 穿鑿하는 硏究者가 對備해야하는 또 다른 學問外的인 問題가 있다. 소위 징고이즘(jingoism)이라고 하는 것, 즉 어설픈 愛國主義의 火焰으로부터 시달릴 覺悟가 되어 있지 않으면, 正義와 眞理를 終局의 目標로 하는 學問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1919年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는 世界一次大戰 中 學者들이 美國의 情報機關을 爲해서 從事했던 점을 想起하고 그에 대해서 批判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Boas 1919). 그로 因하여 보아스와 그의 學問的 追從者들은 "反美國主義者"(un-Americanism)의 嫌疑로 美國人類學協會(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로부터 逐出당하고 美國聯邦政府와 關聯된 모든 公職을 剝奪당하는 經驗을 하였다(Gould 1989: 256-257). 그러한 歷程을 딛고 일어섰기에 오늘날 프란츠 보아스는 美國人類學의 "아버지"라는 稱號를 받고, 미국 내에서는 미국인류학협회를 중심으로 人類學者의 倫理規程이 嚴正하게 정립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植民主義와 學問 사이의 關係에 關한 論議에서 가장 먼저 言及해야 할 部分이 그 사이에서 活動을 했던 學者 또는 硏究者들의 立場과 關聯된 問題이며, 그 立場이란 것이 하나의 現實이라는 점에서 考慮되지 않으면, 우리는 論議의 核心을 避해갈 수밖에 없게 된다. 論議의 核心이란 것은 植民主義와 學問이라는 두 問題의 사이에서 活動했던 硏究者들의 立場과 硏究成果이며, 그것들이 時代的 特殊性이라는 條件의 問題와 脫時代的 普遍性이라는 問題에 비추어서 點檢되어야할 必要가 있다. 暫定的으로 時代的 特殊性의 問題를 나는 狀況主義라고 부르고, 普遍性의 問題와 聯關된 部分을 根源主義라고 부르려고 하며,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程度의 緊張感이 있는 것도 事實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 두 가지의 條件的인 問題를 檢討하지 않은 狀態에서 植民主義와 學問이라는 問題와 그 兩者 사이에서 活動한 學者들의 成果에 대해서 論議를 한다면, 우리는 人間의 삶에 있어서 아주 重要한 變數 또는 어떤 경우에는 常數로 作用하고 있는 時間이라는 問題를 論外로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方向에서 論議를 尖銳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最小限度 先行 硏究者들의 立場과 成果를 尊重하는 後發 硏究者들의 態度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指摘하고자 한다.

換言하면, 이 分野의 硏究는 當時 硏究者들의 立場이라는 점을 無視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條件에서 어떤 立場을 갖고 어느 程度의 硏究에 臨했었는가에 대한 具體的인 分析이 必要하다. 外觀的(etic) 立場 뿐만 아니라 內觀的(emic) 立場의 考慮도 重要하다는 얘기다. 善惡이라는 基準에 立脚한 先入見的인 評價가 先行된다면, 植民主義와 學問의 關係에 대한 硏究는 硏究로서의 價値를 상당부분 喪失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논의를 나는 경계한다. "대만의 대북제국대학교수 金關丈夫(1897-1983), 조선의 경성제국대학 사회학 교수 秋葉 隆(1888-1954), 만주의 건국대학 교수 大間知篤三(1900-1970)의 삼인이 … 식민지에서 만들어진 '帝國主義' 大學에서 식민지연구에 종사했던 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川村 1996: 7)는 주장은 개인 연구자들을 특별하게 지정하여 그들의 행적이 식민지연구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고 한정하여 단언하기에는 당시의 식민통치적 시스템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스템 차원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여 당시의 시스템이 식민통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힌 다음에 개별연구자들의 가담 정도를 가늠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시스템 문제를 먼저 거론하게 되면, 당시의 학자들로서는 어느 누구도 식민통치를 위한 연구자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논리도 경계한다. "總督府의 學術調査와 營利會社의 일을 同一하게 보는 것은 困難하다"(黑澤隆朝 1973: 513)는 주장이다. 總督府에서 學術調査를 擔當하는 것을 當然하게 생각하는 傾向이었음을 暗示한다. 官學協同의 程度가 아니라 官主導의 學術調査에 對한 定型化된 認識이 있었다는 점을 指摘할 必要가 있다. 學術的인 硏究가 官으로부터 獨立的이어야 한다는 認識이 分明하지 않았던 時代的 狀況을 읽어낼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植民主義와 學問(人類學分野도 包含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그 관계에 관여했던 학자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지나치게 근원주의에 입각한 평가였다. 식민통치를 위한 학문적 연구에 관여했으니까 "惡"이라는 상표를 붙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일변도가 현재까지의 경향이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온 연구자들은 그러한 경향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함으로서 적지 않은 탈맥락적인 자료의 인용을 시도하였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한 비판들은 상당부분 타당하기도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필요하고도 충분한 과정을 거친 연구과정의 표현으로서 비판이 전개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주장들이 전개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나는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거기에는 최소한도 세 가지의 이유들을 들 수 있다.

그러한 평가의 일반적인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反省症候群에 젖어있다. 과거는 제국주의와 연결되어 있고, 제국주의와 연결된 과거는 모두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버리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후학들은 선학들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현실에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반

성증후군이 가져다주는 학문적인 차원의 비생산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반성을 위한 반성으로 인하여 사실이 은폐될 가능성도 마련할 수 있다. 사실 여부의 정확한 판단 하에서 진행되는 과거에 대한 반성은 미래를 위해 생산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러한 절차가 기피된 도매금의 반성은 사실 은폐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서 미래의 진로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선학들과 하나의 혈통을 잇고 있는 현재의 일본 연구자로서 선학들의 잘못에 대한 비판이라는 행동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반성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溫情症候群이다. 정치적 피해자들에 대한 온정적인 입장이 작동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확대하여 비난함으로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감정 섞인 분석의 개입을 말하는 것이다. 감정이 개입된 온정주의로 인해서, 사실여부의 세밀한 분석이 방해받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역사의 왜곡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는 당시의 정치적 피해자들을 미래의 역사적 피해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피해자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오리엔탈리즘'의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의 굴레를 둘러쓰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潔癖症候群이다. 정신과병동에서 발견되는 현상의 하나로서 주변의 다른 상황이나 관련성들은 개의하지 않고 현재 관심이 있는 문제에 국한하여 한가지만을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 자체들이 힘을 갖고 움직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반성을 위한 비판과 온정을 위한 비판, 결벽현상으로서의 비판에 충실하다보면, 원래의 목적인 현상분석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수가 있다. '식민주의와 인류학'이라는 장르와 그에 개입했던 연구자들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련되어 있음을 나는 과시할 수 없다.

2. 均衡있는 立場의 整理: 어떻게?

인류학이라는 입장에서 식민주의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역사학이나 사회학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인류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상 취할 수밖에 없는 마지널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인류학자는 식민지배자와 지배당한 자(Memmi 1973)의 사이에 자신을 세우게 마련이다.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양쪽이 만나는 또는 중첩되는 지점 즉 양자의 邊境에서 식민주의와 그것이 전개했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인류학적인 식민주의 연구는 기본적인 구도의 설정에서부터 실패하였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식민지 시대에 행했던 인류학적 연구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명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이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인류학자들의 식민지 지배자들을 위한 협력자로서 또는 주구가 되어서 연구를 빌미로 진행하였던 작업의 현장이 식민지배자와 지배를 당한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처럼 한발 건너서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이 인류학자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류학자가 식민주의를 논하는 것은 다른 입장들보다도 더욱더 긴장감이 고조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종래에 日帝의 식민주의에 대해서 논의해온 것들의 대부분은 이미 서구에서 논의해온 "인류학과 식민주의"라는 틀(Asad 1973)을 그대로 차용하여 대입해본 결과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van Bremen & Shimizu Akitoshi 1999). 나는 이러한 연구과정과 작업의 결과가 기초로 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이 논고에서 제기하려고 한다. 西歐 인류학계에서 논의해온 식민주의에 관련된 문제를 보는 시각과 日帝의 그것은 결코 동일한 상황도 아니고 동

일한 궤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일제의 식민주의라는 것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戰爭이라는 구도다.[2] 서구 인류학계가 주목해온 식민주의의 문제는 전쟁과 결합되지 않은 것이었다면, 일제의 식민주의는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전쟁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역력하게 보이고 있다. 植民에서 戰爭으로 진화하는 일제의 구도는 서구의 그것과는 판이한 모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일제의 식민주의가 내포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산한 결과물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오류를 범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경에 소재했던 民族研究所와 岡 正雄에 關해서 集中的으로 照明한 中生勝美의 作業(中生勝美 1997)은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가려질 수 없는 部分들이 가려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實證하려는 努力은 人類學과 植民主義의 關係에 關한 實證的인 把握이라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喪失된 歷史의 復舊努力이라는 점에서 더 큰 意味를 지닌다. 나는 中生勝美의 意見에 積極的으로 同意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하게 植民主義라는 문제의식과 侵略戰爭이라는 두 가지의 질적으로 다른 문제의식을 대등한 차원에서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구에서 인류학과 결합을 보여온 것은 일단 식민지배 쪽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 침략전쟁과 연관된 인류학의 문제는

2) 내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식민주의라는 틀 속에서 모든 논의가 전개되는 것과 전쟁이라는 문제가 식민주의와 대등한 또는 별개로 관련되어 있는 인류학의 문제는 구도상 다르다는 것이다. 식민주의라는 틀 속에서 전쟁의 문제가 한 부분으로 논의되는 구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이다. 전쟁과 인류학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논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Nakao(1999)와 Shimizu(1999)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가 전쟁과 인류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식민주의라는 틀 속에서의 논의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관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식민주의라는 틀만으로 일제의 인류학을 조망해버린다면, 전쟁구도 속에서 천착되어야 할 부분이 사상될 우려도 있고, 동시에 식민주의의 구도가 전쟁의 문제와 관련된 일제의 인류학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서구식 식민주의 인류학이라는 틀을 일제의 인류학이라는 현상에 적용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관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또 다른 문제의식은 식민주의의 논의에 있어서 개입 가능한 윤리성과 과학성의 혼합에 대한 경계이다. 식민주의라는 틀 속에서 어떤 形態로든간에 參與한 組織이나 個人들에 대해서 "나쁜 놈들"이라는 方向으로만 論議를 始作하면, 우리는 眞實을 破壞하는 過程에 同參하는 結果를 만들어낼 뿐이다. 植民主義와 人類學의 關係에 關한 論議에 있어서 어렵고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道德主義者의 立場으로부터 可能한 한 멀리 避해갈 수 있을 것인가의 問題다. 일단 헤게모니의 論議 즉 支配와 抵抗의 틀로부터 論議를 始作해버리면, 支配쪽은 나빴고 抵抗쪽은 좋았다는 單純化된 二分法의 수렁에 빠져들어 버린다. 이러한 方式의 論理展開는 倫理的일 수는 있을지라도 科學的이기에는 충분하지는 못하다. 종종 윤리적인 문제의식은 '왜, 어떻게'의 반복으로 진행되어야할 과학성의 문제의식을 중도 포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道德的인 價値判斷으로부터의 誘惑을 물리치고 事實立證의 過程을 얼마나 緻密하게 많이 確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植民主義와 人類學의 關係를 論하는 方法의 基礎라고 생각한다.

個人 硏究者가 組織(代表的인 事例로는 "大東亞戰爭" 當時에 만들어진 民族硏究所)의 一員으로서 組織의 目標達成을 爲해서 活動한 경우에 대해서는 疑問의 餘地가 없다. 이 경우는 '政策이 支援하는 硏究'에 參與한 個人 硏究者의 '政策을 支援하는 硏究'라고 評價할 수 있다. 그러나 特定한 組織의 目標와는 關係없이 個人이 始作하고 推

進하고 結果를 만들어낸 硏究들에 對해서는 政策이 支援하는 硏究와 政策을 支援하는 硏究의 차별성에 對해서 嚴密한 區分을 試圖하는 것이 植民主義와 人類學의 關係를 論하는 後學들의 責任이라고 생각한다. 嚴密性의 程度라는 問題를 먼저 내세워서 아예 그러한 細分의 試圖를 하지 않는 것은 評價를 抛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되면, 植民主義와 人類學의 關係에 對한 學問的인 論議는 意味가 없어지고, 그러한 過程을 거치지 않은 狀態의 論議는 倫理主義者의 作業과 混同을 일으킬 危險性을 內包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 個人 硏究者의 全體的인 硏究業績에 對해서 評價하는 段階를 밟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政策을 支援하는 硏究結果도 있을 것이고, 政策이 支援한 硏究에 있어서도 政策을 支援하는 硏究結果와는 直接的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政策과는 正反對의 結果를 生産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 個人 硏究者가 一貫된 主觀을 보이지 않고, 狀況에 따라서 政策에 의해서 左之右之되는 結果를 生産한 경우에, 우리는 그 個人 硏究者에 對해서 綜合的으로 "主觀의 破片化 現像, fractured subjectivity" (Thomas 1994: 60)이라는 評價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3] 그것이 人類學과 植民主義가 結合된 典型的인 모습이라는 토마스의 主張이 說得力을 얻고 있는 점에 대해서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個人 硏究者가 政策을 支援하는 硏究結果만을 生産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예 學問的인 論議의 對象에서 除外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

3) 침략주의의 은폐를 위한 주장(예를 들면, "南洋開拓資源開發의 任務는 東洋에서 第一의 文化國先進國인 我帝國民의 當然한 負擔이라고 생각… 수 십 년 전에 支那가 化外의 蠻民이라고 한 臺灣은 三十年이 지난 今日의 文化를 보여 愚昧無智한 蕃人을 皇化함으로서 大平和를 구가하게 된… 우리들은 결코 侵略主義를 夢想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人類로서 機會를 同等하게 가질 것을 齊唱" (松倉鐵藏 1926: 149-150))과 주관의 파편화 현상은 구분되어야 한다.

政策이 支援하는 硏究에 있어서도 個人의 硏究가 政策을 直接的으로 支援하는 것이 아닌 純粹한 事實과 現狀의 把握이라는 즉 眞理와 正義의 追求(막스 베버의 '職業으로서의 學問'에서 表現된 正義 justice의 問題임)라는 結果의 生産에 對해서도 意味를 賦與할 수 있어야 한다. "大東亞戰爭"中 軍政下에서 軍政의 職責인 "專任囑託"이나 "陸軍司政官"이라는 職銜을 갖고 필리핀과 보르네오 그리고 臺灣에서 活動했던 鹿野忠雄 博士의 事例가 이러한 立場에서 檢討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날 臺灣의 硏究者는 鹿野의 學問的 作業에 대해서 높은 評價를 하고 있다(許木柱 1993). 鹿野忠雄의 경우도, 陸軍에서 自身에게 賦與한 "司政官"[4]이라는 職責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직함이나 직책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연구자료의 수집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면 마다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글의 마지막에 自身의 作業이 政策的 支援의 結果이었음에 대해서 消極的인 한 줄로 表現할 수밖에 없었던 泉 靖一의 報告書도 苦惱의 過程을 보이는 體制의 被害者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過程에 必然的으로 介入될 수밖에 없는 人間的인 苦惱와 그러한 苦惱의 過程에 대해서 價値를 賦與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硏究者들이 取할 수 있는 權利이자 곧 義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過程에 對해서 意味를 賦與하는 理由는 두 가지다. 첫째, 글로는 表現되지 못한 그러나 文章의 行間에서 읽을 수 있는 苦惱의 過程은 窮極的으로 正義의 問題를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둘째, 苦惱라는 至極히 消極的 對應만으로 現實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도 分

4) 司正官은 점령지의 군정에 종사하는 문관으로서 육해군의 촉탁에 임명되었다. 소속 관청 정원 외로 대동아전쟁 때, 남방점령지에 파견하였다. 군정요원 지위향상을 위해 칙령으로, 사정장관과 사정관을 임명하였다. 1943. 1월 현재 육군정원은 사정장관 292명, 사정관 2,429명, 해군은 사정장관 38명, 사정관 1,115명.

明히 政策으로 連結된 體制의 被害者이기 때문이다.

主觀의 破片化 現像을 보이는 硏究者도 體制의 被害者이고, 鹿野忠雄와 같이 政策의 支援과는 相關없이 硏究結果를 生産하려고 努力했고 그 過程에서 不歸의 客으로 行方不明 狀態에 놓여 있는 硏究者도 被害者다. 물론 體制의 被害者라는 認識과 地位 賦與만으로 侵略戰爭에 直接的 間接的으로 協力한 硏究者들의 學問的 責任에 대해서 免罪符를 賦與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日帝의 軍國主義 當時에 日本의 人類學者 集團에서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反旗를 든 硏究의 結果나 主張을 펴지 않았던 것은 一種의 文化的 現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集團主義의 傳統이 强한 日本社會에서 만들어진 日本의 人類學界(民族學界라고 表現해도 좋음)를 반영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日本社會의 文化的 다이나미즘을 論議하는 또 다른 次元에서 分析해볼 수 있는 主題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일제가 운영했던 식민지인 대만과 조선에서 이루어진 인류학적 작업들을 비교적인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일제시대의 인류학이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로 식민주의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시기는 소위 "15年戰爭"(江口圭一 1991)이라고 표현되는 1931년 만주사변에서부터 1945년 이차대전 종결까지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 및 태평양을 무대로 전개한 일련의 전쟁을 집합적으로 칭하는 기간에 해당된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대만과 조선에 있었던 두 제국대학의 설립과정과 성격을 인류학적인 작업의 관련성에 비추어서 비교한다. 둘째, 각각의 제국대학에 설치되었던 인류학 관련 교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주된 연구자들의 인맥을 짚어보고, 그들의 중심적인 활동들을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해본다. 여기에는 그들이 주로 활약했던 학회나 연구회 그리고 전문잡지의 발행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셋째, 인맥과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한 두 학파[5]가 일제의 침략전쟁이 고조되면서 어떤 방식으

로 어떤 정도로 침략전쟁을 위한 동원령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살펴본다.

3. 植民地의 帝國大學

淸日戰爭의 結果 下關條約에 依해서, 臺灣은 1895년 淸으로부터 日本에 割讓되면서 日本의 植民地가 되었다. 그에 對하여 臺灣의 漢民族은 '臺灣民主國'을 創立하는 等의 激烈한 抵抗이 있었지만, 壓倒적인 武力앞에서 鎭壓되었고, 以後 50年間 日本의 支配 下에 놓였다. 日本의 臺灣經營에는 두 가지 側面이 있다. 하나는 苛酷한 收奪이고, 또 다른 하나는 敎化政策이다(馬淵 悟 1987: 212-213). 대만의 원주민이라는 존재는 일찍부터 일본 인류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고, 伊能嘉矩와 鳥居龍藏의 초창기 연구업적들이 있었다. "蒙昧頑愚한 高砂族에 對한 敎育은 … '導化主義'에 立脚한 方針으로서 … '一視同仁'의 旗幟를 드는"(大川正彦 1987: 214-215)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만에서 대학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인 1928년이 되어서야 일본인 자제들의 고등교육을 위한다는 명분을 필두로 하여 臺北帝國大學의 결실을 보았다.

식민통치의 시작은 늦었지만, 조선에서는 식민지에서의 대학에 대한 필요성이 먼저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24년에 京城帝國大學 豫科가 설립되었고,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이 본격적으로 개학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시기에 대한 약간의 이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북제국대학은 일본 본토의 다른 제국대

---

5) 臺北人類學派라는 용어는 등장한 적이 없지만, 京城人類學派라는 용어는 일본인 연구자들의 회고록에서 이미 등장한 바 있다(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纂委員會 1974).

학들과 마찬가지로 예과가 없는 대신에 高等學校의 형태가 존재하였다. 왜 다른 곳에는 없었던 예과가 경성제국대학에만 있었는가(1918년에 설립된 北海道帝國大學에 豫科 설치의 사례가 하나 있음). 지금으로서는 해답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日本 "內地"의 帝國大學들과는 달리 臺灣과 朝鮮의 植民地에 設立된 帝國大學들은 植民統治 目的과 直結되는 特別 管理 下에 놓여 있었다. 帝國大學令에 의해서 同令 中 文部大臣의 職務를 總督이 行하는 것으로 規程되어 있었다. 즉 植民地의 帝國大學은 事實上 植民統治의 全權을 掌握하고 있는 總督의 管理 下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植民地의 帝國大學 敎官들은 總督府職員으로 登錄되어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 경험자들의 회고에서도 대학과 학문의 위상은 다음과 같이 증언되고 있다. "官尊民卑라는 말이 있지만, 總督府는 官尊學卑였다. 學問을 낮추었다"(宮本延人, 瀨川孝吉, 馬淵東一 1987: 178).[6]

대학이라는 존재의 본업인 학문과 연구 그리고 교육이 일제 식민지의 제국대학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가 하는 점은 경성제국대학에서 벌어진 과학과 학술이라는 이름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잘 보여준다. 주로 인류학적인 작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當時 日本帝國 文部省은 大學의 名稱에서부터 많은 神經을 썼다. 京城帝國大學이라는 名稱이 생기는 裏面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當

6) 官이 항상 우위였다는 또 다른 증거물은 다음과 같다. "助手는 判任官이며 總督府의 官吏로서 海軍士官과 같은 制服을 입었다. 나의 최초 俸給은 本俸 60원이었다. 거기에는 植民地手當이 判任官에게는 6割, 高等官은 5割이 附加되었다. 따라서 나는 96원의 월봉을 받았고, 거기에 住宅料 20원이 첨가되었다. 나는 慶應出身으로 私學이었지만, 官立의 東大출신의 本俸은 75원이고 住宅料도 25원이었다. 큰 格差가 있었고, 당시 관계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宮本延人 1982b: 34).

時 朝鮮人들 中心으로 民立大學 設立에 關한 論議가 沸騰하였기 때문에 朝鮮總督府는 그에 對하여 苦心中이었고, 朝鮮에 居住하는 日本人 子弟들의 大學敎育에 대한 必要性이 提起되면서 植民地에 帝國大學의 設立이 急速하게 推進되었다. 처음에는 "朝鮮帝國大學"이라는 名稱이 擧論되었으나, 일본의 法務省 쪽에서 그 명칭은 "朝鮮帝國"이라는 意味를 浮刻시킬 수 있다는 理由를 달아서 拒否意思를 提出했고, 結局 大學의 名稱은 京城帝國大學으로 落札되었다. 이러한 延長線上에서 1928年에 設立된 臺北帝國大學은 "臺灣帝國大學"이라는 名稱을 처음부터 考慮할 必要가 없었을 것이다. 植民地에 設立되는 帝國大學은 植民地의 統治라는 問題와 關聯되어 名稱製作에서부터 敏感한 面이 作用하였다.

學部의 名稱에서도 微妙한 差異가 存在한다. 京城帝國大學에는 法文學部가 있었지만, 臺北帝國大學에는 文政學部가 있었다. 臺北帝國大學에도 京城帝國大學과 마찬가지로 法文學部가 만들어졌을 법한데 文政學部라는 名稱이 登場한데는 그만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한다. 法文學部와 文政學部의 名稱이 주는 意味上 差異는 當地의 事情을 반영하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朝鮮에서는 "法"이 强調되었고 臺灣에서는 "政"이 强調되었다는 意味上 相對的 差異를 指摘할 수 있다. "臺灣은 원래 主權者가 不在했던 곳으로서 統治方法이 問題였다. 卽 法治訓練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原住民들로 하여금 法治訓練에 대한 認識을 심는 것이 가장 큰 宿題였다"(古野直也 1991: 232). 卽 臺灣에서는 法 以前의 統治方式이 더 重要한 當面課題였던 것이고, 그러한 當面問題들이 帝國大學의 設立過程인 學部의 名稱製作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1926年 京城帝國大學에는 "宗敎及社會學敎室", 1928年 臺北帝國大學에는 "土俗·人種學敎室"이 各各 設立되었다. 前者는 宗敎學과 社會學이 物理的으로 結合된 敎室이라는 意味를 반영하며, 그에 대한 積極的인 表現이 "宗敎"와 "社會" 사이에 있는 "及"字가 보여주는 意

味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京城帝國大學이 始作할 때 宗教學者인 赤松智城가 "教授"로, 社會學者인 秋葉 隆가 "助教授"로 赴任하였다. 그 教室이 처음 생길 때에는 宗教에 强調點이 있었기 때문에 教授職에 宗教學者가 任命되었고, 宗教라는 單語가 社會라는 單語보다 앞에 登場한 것이다. 社會學者 中에서도 샤머니즘을 硏究한 經歷이 있는 사람을 選擇한 점에 注目할 必要도 있다. 그만큼 朝鮮이라는 植民地의 統治에는 宗教의 問題가 深刻하게 받아들여졌던 狀況을 반영한다.

東京帝大에서 社會學(물론 이때의 社會學은 隣接學問인 人類學的·民俗學的 傳統도 受容하는 것이었음을 認定해야한다)의 訓練을 받은 秋葉 隆가 英國 및 유럽의 留學 後 帝國大學의 助教授로 赴任할 때, 그는 社會人類學의 方法을 確固하게 受容함으로서 朝鮮에서 人類學과 民俗學의 硏究土臺를 마련하게된 것이다. 宗教學과 社會學의 結合的 반영은 그의 主 硏究主題인 '朝鮮巫俗'에서 實現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反面, 그가 持續的으로 社會學(좁은 意味의)에 關心을 갖고 있었던 點은 後日 宗教及社會學教室에 鈴木榮太郎(東京帝大 社會學教室 出身)란 農村社會學者를 助教授로 迎入한데서도 나타난다. 朝鮮의 現實이 農村社會學者를 必要로 했다는 現實認識의 반영이다.

지금도 一部에서는 通用되고 있는 '社會學은 文明社會의 硏究, 人類學(民族學)은 未開社會의 硏究'라는 스테레오타입的인 二分法이 適用되었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兩쪽에 모두 心理學教室이 있었던 점도 植民地 統治의 目的에 寄與하는 帝國大學의 設立趣旨와 結付되는 것으로 理解된다. 경성제대의 경우 사회학교실, 대북제대의 토속학교실이라는 약칭이 당시에 통용되었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臺北大學의 土俗學教室編의 高砂族에 關한 報告 等을 調査"(黑澤隆朝 1973: 506)했다는 기록과 "土俗學教室所藏品의 撮影을 許可해준 移川教授·宮本延人氏에게 感謝"(岡田 謙 1936: 116)의 말씀을 볼 때, 당시의 土俗·人種學硏究室의 通稱은 '土俗學教室'임에 분명하다.[7]

1) 京城帝國大學

山田總長의 主唱으로 1933年 6月 2日 京城帝國大學 滿蒙文化硏究會의 創立을 위한 發會式이 있었다. 會長은 山田總長이었고, 講演會(1933년 1월 17일, 滿蒙事情, 關東軍司令部附陸軍騎兵大衛 尹相弼)와 發會式 때에는 杉原德行(醫學部敎授)의 琿春及間島地方視察談과 鳥山喜一(法文學部長)의 古代滿洲의 民族과 文化에 관한 강연회가 이어졌다. 6월 6, 8, 10, 13, 15일에는 朝鮮總督府修史官 稻葉岩吉의 淸朝를 中心으로 한 滿洲史에 관한 연속강연회가 있었다(靑丘學叢 13: 188). 만몽문화연구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 및 이어서 만주국 개국에 이어지는 일련의 대륙관련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은 대륙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라는 인식이 팽배해있었고, 경성제국대학은 그에 합당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당시 제국대학 지식인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1932년 만주국 수립, 1933년 4월 열하작전, 화북분리공작과 내몽고공작에 이어서, 關東軍은 1935년 4월경부터 1936년 2월 몽고군정부를 수립하였고, 동년 8월 내몽고군 편성을 완료하였다. 1937년 7월 7일 蘆溝橋 사건으로 中日戰爭의 개시되었고, 관동군은 점령지에 괴뢰정권을 수립하였다. 1937년 9월 4일 察南自治政府(최고고문에 金井章次)를 張家口에, 10월 15일에는 晉北自治政府를 大同에, 10월 27일에는 蒙古聯盟自治政府를 厚和에 각각 수립하였다. 11월 22일에는 세 자치정부를 통합하는 蒙疆聯合委員會를 설립하여, 일본인이 최고고

7) 경성제대의 경우 사회학교실, 대북제대의 토속학교실이라는 약칭은 당시에 통용되었던 기록을 볼 수 있다. "臺北大學의 土俗學敎室編의 高砂族에 關한 報告 等을 調査"(黑澤隆朝 1973: 506, 이탤릭 필자가 붙임). "土俗學敎室所藏品의 撮影을 許可해준 移川敎授 · 宮本延人氏에게 感謝"(岡田 謙 1936: 116, 이탤릭은 필자가 붙임).

문(金井章次)에 취임하였다. 1939년 9월 1일 관동군은 세 정권을 해체하고 몽강지역의 단일정권으로 蒙古聯合自治政府를 발족하였다. 1940년 9월 2일, 정권통합 일주년을 기념하여 金井章次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정치적으로 동아신질서건설과 日滿蒙支連環의 중요한 一翼이다"(蒙疆新聞社 1941: 11).

滿蒙文化研究會를 大陸文化研究會로 확대한 것은 관심영역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京城帝國大學은 帝國의 大陸前進基地인 朝鮮半島에 位置하고, 北支蒙疆으로의 進出이 容易하여"(尾高朝雄 1939: 3) 경성제국대학이 담당해야 하는 관심 및 책임지역은 만몽에서부터 대륙으로 확대되었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대륙문화연구회는 1938年 7月 下旬부터 9月 上旬까지 京城帝大滿蒙學術調査隊를 조직하여 北京, 張家口, 蔚縣, 五臺山, 宣化, 德化, 林西, 赤峰에 이르는 綜合的 學術調査를 실시하였다. 그 학술조사대가 진행되는 과정은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성격을 잘 반영한다.

1937년 중일전쟁에 즈음한 경성제대의 움직임은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今回 聖戰의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 日本精神의 研究, 日本文化의 研究도 必要하지만, 同時에 大陸에 관한 諸般의 知識을 갖는 것이 必要하여, 大陸人의 氣質性格風習을 理解함이 必要하다고 생각함이 今回의 講座開設의 理由다. 京城大學으로서는 開學當初부터 大陸에 關한 學術的研究에 特히 關心을 많이 가져왔다. 滿洲事變直後滿蒙文化研究會를 組織하여 諸般의 調査研究를 하였다. 今回의 日支事變勃發을 機會로 그 組織을 改編하여 大陸文化研究會를 結成, 滿蒙에 머무르지 않고 넓은 大陸의 歷史地理産業經濟其他 여러 가지 方面에 걸쳐서 調査研究를 하여 그 結果를 報告 刊行하고, 또 講演會를 開催"(速水 滉 1940: 4)한다는 경성제대 총장(대륙문화연구회장 겸임)의 주장은 당시 제대교수들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8] 총장을 대표자로 하는 연구회는 時局에 민감한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京城帝國大學大

8) "1938년 3월 下旬, 竹中 教授와 泉 助手 두 명이 先遣隊로 張家口에 가서, 同地駐屯○○部隊本部 및 察南自治政府와 連絡하여 旅行의 可能性과 探險의 行程에 대한 指示를 받았다 … 費用은 外務省文化事業部의 補助를 申請하고, 京城의 官界와 財界에 支援을 要請하였다. 朝鮮總督府南次郎 閣下가 一千圓을 醵出하여 주었고, 總督府外務部에서 五百圓, 朝鮮銀行, 朝鮮殖産銀行, 小林采男氏로부터 각 一千圓씩, 東洋拓殖株式會社에서 五百圓의 寄附金,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를 經由하여 隊費를 受納하였다. 外務省文化事業部에서 三千圓의 補助金支給이 決定되었고, 大阪每日新聞社가 後援으로 一千圓을 補助…朝鮮總督府鐵道局, 滿洲國鐵道總局 그리고 南滿洲鐵道株式會社는 人員과 荷物의 無賃輸送의 好意 … 6월 7일 速水 京城帝國大學總長, 鹽原朝鮮總督府學務局長, 朝鮮軍高級參謀 岩崎大佐 등이 모여 探險隊의 結成式을 擧行하였다. 이때 泉는 助手였고, 本部.登山班.學術調査班의 經濟學班에 所屬되어 이 探險의 中心的인 役割을 하였다 … 朝鮮軍司令部는 始終多大한 好意를 보여 計劃의 遂行을 支援하였다 … 7月 7日에 荷物을 張家口로 託送하고, 9일 泉 助手와 服部 裝備係 두 명이 先發隊로 京城을 出發하여 張家口로 向하였다. 本隊는 7月 14日 朝鮮總督府와 朝鮮軍司令部를 訪問하여 南朝鮮總督, 大野政務總監, 小磯朝鮮軍司令官의 三閣下에게 出發申告, 朝鮮神宮에 參拜하여 探險의 成功을 빌었다. 7月 21日 京城出發, 本隊. 先發隊는 7月 14日 張家口에 到着. ○○部隊 ××部隊, 陸軍特務機關, 蒙疆聯合委員會, 察南自治政府 등을 歷訪, 隊의 行動에 대한 指示를 받았다. 陸軍特務機關과 蒙古聯盟自治政府로부터 內蒙旅行의 諒解를 구했다. …××部隊로부터 特別任務를 附與받은 援護隊가 分派되어 探險隊와 行動을 함께 하였다 … 7月 26日 陸軍特務機關에서 隊員一同에게 蒙疆의 軍事的政治的經濟的 重要性과 特殊性을 說明듣고, 張家口 郊外의 遠來莊에서 蒙疆聯合委員會 및 察南自治政府 主催의 盛大한 歡迎會에 出席, 軍과 政府의 要因과 懇親會를 가졌고, 28日에는 同一한 遠來莊에서 關係機關長들을 招待하여 午餐會를 열었다. 蒙疆聯合委員會 主催의 講演會에서 筆者는 國家論, 鈴木 副隊長은 大陸루-트論을 題目으로 講演하였다 … 援護隊 將兵 ○○名. 28日 밤 隊員의 一部는 ○○部隊參謀長의 招宴을 받았다. 7月 29日 張家口를 出發하여, 8月 17日 다시 張家口로 歸着하였다. 20日刊의 日程(이었다) … 10月15日 京城帝國大學 講堂에서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의 主催로 報告講演會를 가졌다. 同時에 法

陸文化研究會는 時局의 必要에 비추어서 1939年 9月 9日 11月 8日에 이르는 期間에 每週 3回 第1回 大陸文化講座를 開催"(速水 滉 1940: 1)하였다.

"國策과 學理는 車의 兩輪이고, … 大陸의 政治的經濟的 經營은 먼저 大陸의 風土.大陸의 文化에 대한 冷靜周到한 科學認識에 立脚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적으로, 軍旗가 가는 곳에 科學旗도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大陸進出의 第一線에 있어서, 어떻게 軍事施設.政治經營과 學術調査.科學研究가 內的으로 서로를 包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체험으로 얻은 셈이다. 우리가 大陸文化戰을 目的으로 하는 尖兵의 役割"(尾高朝雄 1939: 15-16)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의 저자는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고, 후일 동경제대의 교수가 된 사람이다. 그는 태평양협회에 泉 靖一를 소개하고 泉로 하여금 뉴-기니 자원조사대의 일원으로 가도록 주선한 泉의 영원한 후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軍旗"를 따라가는 "學旗"의 구도 속에서 당대 학문의 軍-學複合(military-academic complex)적인 성격과 실체를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경성제대의 대학차원에서 이루어진 학술활동은 상당부분이 官-軍-學複合의 典型的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외무성문화사업부를 비롯한 官과 조선군사령부를 비롯한 軍당국과 경성제국대학이라는 학자

主催의 盛大한 歡迎會에 出席, 軍과 政府의 要因과 懇親會를 가졌고, 28日에는 同一한 遠來莊에서 關係機關長들을 招待하여 午餐會를 열었다. 蒙疆聯合委員會 主催의 講演會에서 筆者는 國家論, 鈴木 副隊長은 大陸루-트論을 題目으로 講演하였다 … 援護隊 將兵 ○○名. 28日 밤 隊員의 一部는 ○○部隊參謀長의 招宴을 받았다. 7月 29日 張家口를 出發하여, 8月 17日 다시 張家口로 歸着하였다. 20日刊의 日程(이었다) … 10月15日 京城帝國大學 講堂에서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의 主催로 報告講演會를 가졌다. 同時에 法文學部 第1會議室에 寫眞 약 50枚, 採集品數百點을 展覽會로 하였다. 展覽會에는 總督 總監兩閣下의 來臨이 있었다(尾高朝雄 1939: 4-14 참조).

집단이 합작해서 학술조사라는 것을 시행한 과정이 나타난다. "경성제국대학은 '콜로니얼리즘의 문화적 장치'였다"(鄭圭永 1999: 21)는 주장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2) 臺北帝國大學

臺灣 在住者의 向學心이 크게되어 그 子弟들이 大學教育을 받도록 하기 위함과 臺灣이 南洋과 南支方面의 學術研究에 최대로 便利한 位置에 있는 관계로 最高學部를 設置하였다(臺灣教育會 1939: 955). 대만총독부는 교수요원의 확보를 위해서 臺北高校의 교수로 발령을 받은 사람들 중 "20명을 1926년에 在外研究員으로 해외에 派遣하였다"(臺灣教育會 1939: 955). 이들은 대체로 1년 10개월 내지 2년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곧 바로 대북제국대학의 교수요원이 되었다.

臺北帝國大學은 1928年 3月 17日附로 官制를 公布施行하였다. 당초 文政, 理農의 二學部로 시작했으나, 1936年 醫學部를 增設하였다. 文政學部는 哲學, 史學, 文學, 政學의 四學科로 구성되었다. 文政學部의 講座에는 25講座 中에 "土俗學.人種學"이 있다. 史學科에는 內地人 學生 5名이 있었다(臺灣總督府 1939: 192-194). 철학과 학생 1명, 문학과 학생 10명, 정학과 학생 53명과 비교된다. 문정학부 학생 전체는 69명이었다. 學科中心制이기보다는 講座中心制(臺北帝國大學講座令 勅令 第33號)로 운영되었다. "文政學部에 七講座를 設置...그 講座中 臺灣을 中心으로 研究하여 特色을 發揮할 수 있는 것은 文政學部에서는 南洋史學이 있고, 土俗學.人種學의 講座가 特히 有望하다"(臺灣教育會 1939: 956-957).

助手도 定員이 있어서, 政學科 1명, 文學科 1명, 史學科 1명, 心理學專攻 1명, 土俗學人種學 1명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土俗學人種學 教室은 다른 것과 아주 다른 取扱을 받았다. 특별히 助手를 둔 것은 實驗을 주로 하는 理科學系와 同一視 하였다(宮本延人 1985c: 43).

두 帝國大學의 狀況을 比較함에 의해서 드러난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이 있다. 京城帝國大學에서는 大學次元의 學術調査活動이 大陸을 겨냥하여 頻繁하게 일어났으며, 臺北帝國大學에서는 教室次元의 學術活動이 주를 이루었다. 大學次元에서 이루어진 活動이란 요즈음 表現으로 말하자면 學際的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報告書의 內容으로 볼 때, 당시의 學術調査團이란 것은 行事的 性格이 强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官廳과 軍當局이 깊숙하게 介入되어 있는 學術調査活動이었기 때문에, 그 過程과 結果가 얼마나 學問的이었느냐 하는 점에서는 疑問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學術調査團의 主體로부터 밝혀진 結成目的이 分明하게 大陸進出을 위한 尖兵役割을 公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興味있는 部分이다. 反面에 臺北帝大의 教室中心 作業은 相對的으로 學問的인 業績의 成果를 보이고 있다.

日帝라는 한 뿌리에서 나간 두 帝國大學의 활동에 대해서 단순화의 위험성을 감수한 판단이 허용된다면, 臺北帝大는 教室中心, 京城帝大는 大學中心에 각각 비중을 둔 學術活動을 展開함으로서 學術活動의 形態와 組織面에서 差異를 보이는 점이 確認된다. 특히 각각에 소속되어 있었던 인류학자들의 활동은 더욱더 그러한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두 帝大가 모두 각각의 地域에 該當되는 特性을 基盤으로 하여, 하나는 南支와 南洋, 다른 하나는 大陸으로의 前進基地 役割이 賦與되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基盤위에서 活動한 人類學者들의 業績을 比較해볼 때, 大學中心에서 構成한 調査團의 一員으로 學術活動을 했던 京城帝大의 教授들보다는 教室中心에서 活動한 臺北帝大 人類學者들의 業績이 相對的으로 더 學術的 價値를 많이 담고 있다는 評價가 可能하다. 代表的인 例가 臺北帝大 土俗·人種學教室에서 나온 移川子之藏의 《臺灣高砂族系統所屬의 研究》(1935년)과 京城帝大 宗教及社會學教室의 赤松智城·秋葉 隆의 共著로 나온 《朝鮮巫俗의 研究(上·下)》(1937년)

의 質的比較에서 읽어진다. 資料의 蒐集方式과 인포먼트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료의 分析 및 整理의 密度에 있어서 兩側의 作業은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前者가 優秀하다. 전자가 장기거주학습에 의하여 진행된 작업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후자는 단기방문확인 정도의 수준에서 달성된 결과라고 대비시킬 수 있다. 學術活動의 形態나 組織의 差異가 結果의 內容 面에 있어서 質的인 差異를 보이는 點과 同一한 軌跡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吟味해볼만한 問題다.

대북제국대학의 상황과 동 대학 · 학교실의 업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대만대학의 인류학과와 도서관에서 비교적 잘 정리가 된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 일본의 패전 후 대북제국대학의 일본인 교수들이 길게는 3년 내지 4년씩 대만에서 대만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중국인들에게 시스템을 무리없이 인계하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자료들이 고스란히 잘 남아 있다. 그러나 경성제국대학에서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모든 시스템은 단절되었고, 일본인 교수들은 引揚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시스템이 승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국대학의 문서와 각종 서류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오리무중의 상태를 맞게 되었다. 일본의 패전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각종 문서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성제국대학의 상황을 대북제국대학의 상황만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되어버렸다.

또 다른 한편 경성제국대학이 일본의 패전과 함께 문을 닫은 후, 일년간 경성대학으로 남아 있었고, 1946년 8월부터 경성대학은 미군정의 관할 하에서 국립서울대학교로 변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성제국대학과 경성대학의 관련 문서들이 종적을 감추었는지, 또는 1950년에 발발한 전쟁의 와중에서 문서들이 산일되었는지 조차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 教室과 學會: 學派의 형성

京城帝大의 "宗教及社會學教室"(필요한 경우에 略稱으로 社會學教室이라고 부름)과 臺北帝大의 "土俗·人種學教室"(필요한 경우에 略稱으로 土俗學教室이라고 부름)은 各各의 特殊한 事情에 의해서 組織 및 運營 그리고 指向點이 다르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日帝의 植民地라는 共通點으로 因해서 보여주는 類似性도 있다. 帝國大學의 運營이라는 點에서 빠뜨릴 수 없는 部分이 兩쪽이 모두 醫學部의 解剖學教室에서 人類學(體質人類學)을 講義 및 研究하였고, 關聯된 專門家가 各各의 人類學 關聯 教室과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면서 共同 또는 協調的인 結果를 生産한 점이다. 이 部分에 대해서도 言及이 필요하다. 그러한 人脈의 連結網을 基礎로 하여, 지금 우리들은 兩쪽의 比較에서 學派라는 次元의 論議를 展開할 수 있다. 이른바 "臺北人類學派"와 "京城人類學派"를 擧論할 수 있는 根據의 마련을 試圖한다. 전자는 후자를 의식하여 내가 만든 용어이고, 후자는 이미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에 의해서 제안된 용어이다.

학술활동의 측면은 교실(연구실)과 학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대만과 조선에서 활약했던 인류학자들의 학문적인 성과는 각기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을 이루었다. 두 식민지에 건설되었던 제국대학에서 일본인류학의 꽃이 개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1) 臺北人類學派

臺北帝國大學의 경우, 教室 名稱에 대해서는 약간의 沒理解와 誤解의 複雜한 樣相을 보임으로서, 教室 設立의 主役과 關聯된 本質的인 問題의 理解 뿐만이 아니라 日本人類學史의 一面을 理解함에 있어서

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教室 名稱에서 "土俗"과 "人種" 사이에 "及" 자 代身에 "·"을 挿入한 表現은 點 사이의 두 가지가 別個가 아니라는 意味가 强하다. 卽 最小限度 土俗學과 人種學이라는 別個의 學問들이 物理的인 結合하였다는 表現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土俗"과 "人種" 사이에 點이 없음으로 因해서 發生할 수 있는 誤解를 事前에 排除하려는 意圖도 包含되어 있다. 卽 "土俗人種學"이란 學問의 名稱은 없다는 意志의 表現이 "·"에서 强調되고 있다.

그래서 이 教室에는 專攻者를 한 사람 教授로 任命한 것이며, 教室의 名稱은 學問外部의 問題에 의한 表現이 아니라 어떤 特定 學問內部의 問題가 반영된 것으로 理解한 結果의 表現일 수 있다. 하나의 學問을 어떤 集團에서는 土俗學이라고 表記하고, 또 다른 集團에서는 人種學이라는 飜譯語를 使用하는 現實을 尊重하여 두 名稱을 點으로 連用하는 表現方式을 採擇한 것이다. 또는 時代的으로 달리 表現된 學問의 名稱을 모두 尊重한 表現일 수도 있다.

"·"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실례로 "臺大에서는 奇妙하게도 '土俗人種學'이라고 불렀다"(倉田 勇 1992)는 교실 명칭에 대한 "기묘한" 코멘트도 등장하였다. 사실 教室의 名稱은 "土俗人種學"이 아니라 "·"이었다. "土俗"과 "人種" 사이에 있는 點에 대해서 깊은 意味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로 "土俗人種學"이라는 奇妙한 이름이 만들어진다.

미국으로부터 歸國한 直後부터 移川는 土俗과 人種이라는 單語를 竝列的으로 使用하기 始作하였다. "土俗的否人種的關係"(移川子之藏 1919: 234)라는 表現에서 "否"는 文脈上 或(영어의 or)의 뜻이다. "土俗學이라는 單語는 大正年間에 나온 大日本語辭典에서 引用해보면, '諸地方의 固有 風習, 習慣 등을 硏究하는 學問'이라고 했다. 土俗學이라는 단어를 第一 먼저 使用한 사람은 鳥居龍藏博士다. … 人種學이란 단어는 당시 넓게 사용되었는데, 안스로포로지의 意味를 담았다. 明治, 大正 頃에 體質과 文化도 혼연되어 硏究하는 넓은 意味

로 使用되었다. 移川 교수는 하바드대학에서 안스로폴로지를 배웠고, 身體計測도 學科의 一部로서 하였고, 人種問題의 基礎로서 배우게 했다"(宮本延人 1983b: 32). "鳥居가 一貫되게 사용한 用語가 '人種學'과 '土俗學'"(清水昭俊 1995: 12-13)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移川는 日本人類學界에서 일찍부터 使用해오던 槪念의 흐름을 繼承하려는 精神이 있었고, 그 精神을 臺北帝大 土俗·人種學研究室의 名稱에서 實踐하려는 努力을 하였다는 評價가 可能하다.

移川를 中心으로 하는 研究室의 性格이 出發부터 植民統治와 密接한 關聯性을 맺고 있다는 점은 移川의 1926년부터 1년 10개월 간 유럽 留學期間에 整理된 "人種學"에 관한 見解에서 披瀝되고 있다. "植民地를 갖고 있는 國家의 最高 學部인 大學에 人種學關係가 없는 곳은 없다. 美國에서도 英國에서도(濠洲, 南阿도), 獨逸에서도 和蘭에서도, 벨기에에서도 이태리에서도 모두 人種學 關係의 學科를 講義하고 있다. 植民地를 標榜하는 그런 研究室이 파리대학에서 登場한 것은 當然한 事實이라고 생각된다"(移川 1927: 149-150). 植民政策과 應用人類學이라는 次元의 問題意識이 重大하게 考慮되었던 점을 알 수 있고, 植民統治用의 實質的인 側面을 考慮하는 "土俗·人種學"을 念頭에 둔 移川의 立場이 表明된 部分이다.

移川는 그 후에도 持續的으로 "土俗·人種學"이라는 用語를 驅使하고 있다. "筆者의 恩師인 디킨손 博士, … 世界 有數의 土俗·人種學者..."(南方土俗 3권3호, 1935년 7월호, p.88.), "土俗·人種學者로서 미국하바드대학 人類學教授 디킨손 博士 …"(移川子之藏 1935b: 156), "博士의 專門은 土俗學(ethnography) 내지 人種學(ethnology)에 있고"(移川子之藏 1935b: 161)등의 문맥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토속학과 인종학의 구분을 말리노브스키가 1922년에 제시했던 논의(Malinowski 1922)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눈에 뜨이는 부분이고, 당시 移川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인류학계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점도 지적할 수 있다. 日本側의 唯一한 代表로

서 國際人類學.民族學協會의 國際會議를 다녀온 後에 會議參席의 結果報告를 發表한 紙面에서도 "土俗學은 ethnography, 民族學 = 人種學은 ethnology, 人類學은 anthropology"(移川子之藏 1939)로 使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一連의 陳述에서 移川에게 "土俗 · 人種學"이란 ethnography와 ethnology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의미로 제작된 용어이고, 그것은 내용상 人類學을 意味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당시 日本에서 人種學이란 單語가 人類學을 意味하는 것이었는데, 그 人種學 앞에 土俗이라는 單語를 붙인 것은 종래에 일찍부터 通用되어 오던 土俗 및 土俗學이란 것의 내용을 接合함으로서 輸入學問의 土着化 努力의 一環이었다고 解釋할 수 있다. 土俗이라는 單語는 移川가 이 分野의 學問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日本에서 通用되고 있었던 單語와 槪念이기 때문에, 그것을 承繼해보자는 뜻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土俗 · 人種學"이라고 불렀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다. 일본에서 土俗 또는 土俗學이라는 單語는 이미 19세기말부터 사용되어오던 것으로서 民族學을 일컬었고, 移川 자신도 구미의 여행중에 土俗學이라는 단어를 ethnology에 적용하였던 경험도 있고, 그 뒤에 人種學이 붙은 것은 당시 anthropology가 人種學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美國의 anthropology 學科에서 교육을 받았던 移川가 그 배경으로서 anthropology를 버릴 수가 없어서 人種學을 붙인 것이다. 말하자면, 移川는 유럽식의 民族學과 미국식의 人類學을 모두 合한 學科를 생각하고 土俗 · 人種學이라는 名稱을 만들었다는 判斷이 可能하다.

英文으로 敎室의 名稱을 "Institute of Ethnology"라고 적은 것은 外國과의 交流를 爲한 것이라는 說明이 있지만, 그것은 名稱의 意味를 그렇게 設定한 理由에 대한 說明이 아니라 英語의 名稱이 있음으로 因해서 外國과의 交流를 容易하게 하겠다는 意味로 解釋될 수 있다는 方向으로 再解釋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移川는 1910年代 後半 美國에

서 人類學(anthropology) 敎育을 받은 사람이다. 당시 美國에서 ethnology라는 用語를 주로 適用한 것은 美國 內의 原住民인 인디언을 硏究하는 分野라는 意味를 담고 있었다. 물론 유럽에서는 ethnology가 social anthropology와 類似한 意味로 使用되고 있었던 점도 考慮되었을 것이다. 臺灣의 原住民을 主로 硏究한다는 意味가 土俗·人種學敎室의 英文名稱이라고 생각되고, 實際로 移川를 비롯한 敎室員들(宮本와 馬淵)은 臺灣 原住民 硏究를 敎室의 가장 큰 事業으로 進行시켜서 그 結論을《臺灣高砂族系統硏究의 硏究》라는 題目의 冊으로 엮었다.

따라서 臺灣의 民族運動과 聯關性을 가질 수 있는 "民族學"이라는 單語를 忌避하는 總督府의 意志를 반영하여 "土俗·人種學"이라는 用語를 敎室의 名稱에 適用하였을 것이라는 馬淵東一의 說明(馬淵東一 1947)은 後日 政治的 狀況에 대한 考慮를 意識해서 添附된 解釋일 可能性이 높다. 당시 '民族學'이란 學問의 名稱이 日本의 學界에 普及되었지만, 臺灣의 民族運動에 관련된 '民族'이란 말이 總督府 側에서 忌避되어 土俗·人種學硏究室 또는 南方土俗이라는 表現으로 落札되었던 것 같다. 후일 토속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대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받아들여야할 것 같다. 太平洋戰爭 수년 전부터 日本 본토에서는 歐美에 대한 아시아 諸民族의 解放 등의 論議가 있어서 '民族'이라는 말이 流行氾濫하였고, 〈南方土俗〉도 후에는 抵抗되어 〈南方民族〉으로 개제되었다"(馬淵東一 1973: 2).

"日本 文化人類學 搖籃의 時代가 열리는 最初의 共同 필드워크"(山崎柄根 1992: 102)였던 移川 一行의 1929년 紅頭嶼 調査(當時 移川 34歲, 宮本 28歲, 鹿野 22歲, 馬淵 21歲, 山崎柄根 1992: 103)에서 부터 "日本 人類學史上 처음의 人類學的 成果"(馬淵 悟 1987: 237)로서 評價되고 있는《臺灣高砂族系統所屬의 硏究》(1935)를 위한 당지연구는 臺北帝大와 土俗·人種學敎室의 學問的 足跡과 日本人類學史에서

의 巨人的인 役割로 評價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 책의 題目 위에는 "上山元臺灣總督記念事業"이라는 頭註가 붙어 있고, 英文題目은 The *Formosan Native Tribes: A Genealogical and Classificatory Study*이며, 臺北帝大總長 幣原 垣의 "序"에 "移川子之藏教授를 主로 하고, …宮本延人 助手, 囑託 馬淵東一 氏로서 分擔補助"(pp. 1-2)하였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 작업은 지금도 그 영향력이 대단하여, "移川子之藏 等의 '臺灣高砂族系統所屬之研究'는 非常히 詳細한 重要한 資料다"(許木柱 1993: 145)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移川子之藏-宮本延人-馬延東一로 이어지는 土俗學教室과 그 周邊의 人物들에 대해서 仔細하게 살펴볼 必要가 있다.

移川(1884-1947)는 日本人類學에서 臺灣을 包含하는 南中國, 東南아시아, 南太平洋 研究의 基礎를 마련한 사람이다. 福島縣 出身으로서 13歲에 미국으로 留學을 간 그는 시카고 大學에서 人類學工夫를 할 當時에 東京人類學會에 入會한 記錄을 보인다. 移川子之藏(N. Utsurikawa)의 1914년 1월 住所는 M. D. Hall, University of Chicago, Ill, USA이고, 1918년 하바드대학 人類學科에서 딕슨 教授의 指導로 인도네시아의 文様에 관한 論文으로 人類學博士를 取得함과 同時에 하바드大의 奬學金으로 동남아시아 및 동인제도의 現地踏査를 하였다. 그는 미국문화사학파의 理論에만 執着하지 않고 디자인에 대한 解釋學的 可能性의 探究가 重要하다는 提案(Utsurikawa 1921)도 하였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慶應義塾大學 史學科에서 행한 그의 人類學講義는 "週 1回였고, … 大森貝塚의 발굴을 위해서 移川教授를 위시해서 학생, 졸업생, 사학과 교원도 참가하였다. 패총의 일단에서 人骨이 한 軀 나왔고, 移川교수가 小金井良精 박사에게 의뢰"(宮本延人 1982a: 37)하기도 하였다.[9]

---

9) 小金井良精 박사는 독일유학에서 比較解剖學을 공부했고, 東大에서 解剖學을 강의하였으며, 일본인류학의 창시자인 坪井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그의 경력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慶應大學文學部講師囑託(史學科의 人種學講義), 1921년 東京商大附屬專門部 敎授兼東京商大豫科敎授(英語擔當, 敎材는 다윈의 '種의 起源'), 1922년 蕃族調査事務囑託(臺灣總督府), 1925년 東京人類學會評議員위촉, 1926년 臺北高校敎授 任命과 同時 臺灣總督府在外硏究員으로서 1년 10개월간 英佛蘭獨과 印度에 留學, 1928년 3월3일 歸國, 任臺北帝大敎授, 文政學部 土俗·人種學講座擔當을 命받음, 1929년 臺灣總督府博物館事務囑託, 1934년 國際人類學及民族學學術會議評議員위촉, 日本民族學會理事위촉, 1936년 '臺灣高砂族系統所屬의 硏究'로 帝國學士院賞, 考古學會評議員의촉, 1937년 歐洲諸國出張(臺灣總督府의 임무), 國際人類學及民族學學術會議評議員會 出席, 1938년 敍高等官1等, 任臺北帝國大學評議員(臺灣總督府), 1940년 文政學部長, 1941년 南支및 佛印 出張, 1943년 南方人文硏究所長, 셀레베스와 쟈바 出張, 1944년 學術硏究會議員命, 1945년 依願免本官, 敍從3位, 國立臺灣大學文政學院 留用(11월) 및 留用解除(12월), 1947년 2월 9일 沒(62歲).

臺灣總督府와 移川敎授의 因緣은 1922년에 맺어지기 始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가 臺北帝大에 起用되는 것은 臺北帝國大學이 企劃될 당시, 臺北帝國大學 初代總長 幣原 垣(수년 동안 韓國統監府의 교육 고문을 역임한 바 있으며, 당시 外務大臣 幣原喜重郎 男爵의 兄으로서 歷史學博士)의 선택이었다.[10] 幣原 總長은 帝國大學設置의 構想으로서 創立委員이었고, 일찍이 臺灣에 가서 人類學關係의 學科 設

10) 幣原 垣는 春丘居士라는 호를 갖고 있으며, 조선의 그림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다. 1904년(명치37년) 8월 22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에서 顧問政治가 시작되었을 때, 學部參與官이라는 직함으로 대한제국의 교육개혁을 주도한 사람이다. 1905년 11월에 통감부 설치 협약이 이루어지고,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고, 伊藤博文가 통감으로 들어오면서 幣原는 사임하고 귀환하였다.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많은 논문을 남기고 있다.

置가 必要한 점을 認識하고, 移川 先生을 選擇했으며(宮本延人 1983b: 33 & 1985c: 43), 後日 移川가 主導한 南方土俗學會 例會에서 몇 차례의 發表를 하기도 하였다.

대만총독부의 재외연구원으로 유럽에 파견되는 길에서 보내온 移川의 소식을 읽어보는 것은 당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移川子之藏의 通信"이라는 제목으로 歐洲로 向하면서 1926년 4월 9일 上海에서 發信한 것이 처음이다. "(4월) 5일 午後 6時 神戶에서 佛國郵船 보-루루카 號에 乘船 上海到着"(人類學雜誌 41卷5號: 295)하였다. 6월 15일 到着한 書信은 런던에서 보낸 通信이다. "파리에서 2-3일 滯在하고 5월 18일 저녁 런던에 到着. 파리에서는 同地 人類學會 主催 講演에 參加하여 蘭人 Van Vuureu氏의 活動寫眞 使用 세레베스 섬 토라쟈 族의 葬禮式에 關聯된 이야기를 들었다"(人類學雜誌 41卷7號: 335, 1926년). "케임브리지大學에서 해든 老敎授를 訪問하고 저녁초대를 받고, 太平洋會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옥스포드大學의 젊은 Buxton을 만나고, 런던大學의 Seligman敎授는 病氣로 靜養中이었다. 7월 10일 런던에서 씀"(人類學雜誌 41卷9號: 470, 1926년).

1월 5일 파리에서 發信된 通信에는 "汎太平洋學術會議는 大成功으로 끝났고, 英國의 스콧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等을 1個月 半 동안에 旅行하였다. 11월 초에 파리에 到着하여 소르본느大學내에 新設된 土俗人種學硏究所關係의 사람들을 만났다"(人類學雜誌 42卷1號: 45, 1927년 1월호). 1927年 8月 26日 헬싱키에서 배를 기다리며 보낸 便紙의 一部도 있다. 移川子之藏 氏는 9월 6일 핀란드의 首都 헬싱키에서 발송한 편지에서는 "오랜동안 남구의 여행에 이어서 도중에 화란에 들렀다가 백림에 잠시 체재한 후, 북구로 왔다. 스웨덴의 웁살라에서 … 지금부터 露國 레닌그라드로 향할 것이다"(移川子之藏 1927b). 移川子之藏씨의 마지막 서신은 1927년 1월 20일 토이기 스미루나 발신의 편지이며, "구주를 나와서 발칸제방을 경유하여 먼저 터

어키 군부로부터 스미루나로 왔다"(人類學雜誌 43권 3호, 1928년 3월).[11]

이미 서양에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移川 교수의 약 2년 간 구주 유학은 인류학자의 유럽 주마간산기라고 말할 수 있다. 유럽 각 대학의 인류학 연구 상황을 상세하게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 경향을 살피면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여정이었다. 상당한 시간은 교통편에서 보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移川敎授는 臺北帝大가 開學한 1928年度부터 거의 每年 土俗·人種學槪論과 土俗·人種學實習及演習을 강의하였으며, 實習及演習 時

11) 다음의 글은 馬淵東一이 적성한 移川의 著作目錄에 漏落되어 있다.
"英佛의 重要한 大學의 人類學에 對한 紹介: 倫敦大學(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niv. of London)의 土俗人種學講座에서 셀리그만 敎授가 '一般土俗人種學' 講義를 담당하고, 말리노브스키 博士가 '社會人類學' '멜라네시아의 文化' '未開人의 心理' '比較言語學'을 가르치고, 英博物館의 체이스 씨가 '未開人의 技術工藝'에 關한 講義를 하는 이외에 아아스 氏가 加勢하고 있다. 또 社會學部 쪽에서 웨스터마크 敎授가 '家族', 홉하우스 敎授가 社會心理學 等의 相互關聯되는 講義를 하고 있다. 또 同大學(London University College) 쪽에서 베리氏가 文化人類學을 가르치고 있다. 牛津大學(Oxford University)에서는 體質人類學과 文化人類學을 分離하여 前者는 다시 '比較解剖, 化石人類及人種體質論'으로 細分되어 主로 벅스톤 君이 擔當하고 있다. 文化人類學 쪽의 細分은 考古, 土俗人種, 社會, 工藝技術의 諸論이고 마렛 博士가 主로 講義를 하며, 工藝技術 쪽은 同大學 핏트 리버스 土俗博物館의 바루포아 氏가 擔當하여 實物授業을 主로 한다. … 劍橋大學(Cambridge University)은 해든 博士가 '一般人類學' '社會人類學' '未開人의 技術工藝' 等의 講義를 하고, 當大學에도 人類學委員會가 있어서 考古學, 言語學, 心理學, 地質學, 建築學 等의 分野와 連結되어 있다. 同 大學에는 考古學土俗人種學博物館이 있다. 南洋土俗品이 잘 되어 있다. … 그외에 웨일즈大學에는 地理及人類學講座가 있고, … 스콧틀랜드의 에딘버러大學地理科에는 '經濟土俗學'이라는 科目이 있다(移川 1927: 147-150).

間에 使用한 教材들은 Frazer의 *The Golden Bough*, R. Moss의 *The Life after Death in Oceania and the Malay Archipelago*, Westermark의 *Early Belief and Social Influence*, L. H. Duley의 *The Peoples of Asia* 등이었다. 概論과 實習及演習 以外에도 南洋及東南亞細亞民族誌, 太平洋民族誌(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民族誌 등의 講義題目들이 보인다. 概論의 講義는 1學期에 體質人類學과 歐洲先史學, 2學期에 濠洲土人의 社會組織과 멜라네시아의 物質文化가 주된 내용이었다. 演習이라고 불리는 것은 座談會 形式이었으며, 順番으로 텍스트의 概要를 譯述하고 先生의 說明이나 註釋을 添加하는 過程이었다. 이렇게 강의를 하였다는 것은 미국식 대학원의 코스웍이라는 과정의 훈련을 받은 영향으로 볼 수 있다.[12]

---

12) 移川教授가 行한 講義題目들과 教材들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28年度 土俗人種學概論(二), 土俗人種學實習及演習(一)(Frazer: *The Golden Bough*)

1929年度 土俗人種學概論(二), 土俗人種學實習及演習(一)(Frazer: *The Golden Bough*)

1930年度 土俗人種學概論(二), 南洋及東南亞細亞民族誌(二)

1931年度 土俗人種學概論(二), 太平洋民族誌(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二)

1932年度 土俗人種學概論(二), 인도네시아 民族誌(二)

1933年度 土俗人種學概論(二), 土俗人種學實習及演習(二)(R. Moss: *The Life after Death in Oceania and the Malay Archipelago*)

1934年度 土俗人種學概論(二)

1935年度 土俗人種學概論(二), 土俗人種學講讀及演習(二)(Westermark: *Early Belief and Social Influence*)

1936年度 土俗人種學概論(二), 土俗人種學講讀及演習(二)(L.H.Duley: *The Peoples of Asia*)

1937年度 土俗學.人種學概論(二), 土俗學.人種學.講讀及演習(二)

1938年度 土俗學.人種學概論(二), 土俗學.人種學特殊講義(二)

移川子之藏 敎授는 總督府傘下 史蹟名勝天然記念物調査會 委員(臺灣總督府 1936: 156)이었으며, 네델란드로 여행을 하여 헤이그의 국립문서관에 소장된 "二萬五千枚"나 되는 대만관계 문서의 목록을 작성해 오기도 하였다(移川子之藏 1938: 4). 移川교수의 이름에 대한 표기가 약간씩 달리 나타나는 것도 일단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왜 문서마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볼 일이다. 1934년도 移川의 英文表記에는 "우츠리가와"로 되어 있는데(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2, 1935年 發行), 1936년도의 총독부문서인 職務俸年에 관한 내용에서는 "우츠시가와"라고 적혀 있다.

宮本延人(1901-1989)는 慶應義塾大學 在學 中 柳田國男와 移川子之藏의 講義를 받았다. 1928년 東洋史學科를 卒業하면서 移川의 부름을 받고, 創設되는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土俗·人種學研究室의 助手로 赴任하여, 1928년 7월초 移川교수를 따라서 타로코蕃으로 野外調査를 처음 나갔다. 필드에 강한 宮本 助手는 史學科 踏査 引率에 많이 참가하였다. 1935년 宮本는 戰禍를 입은 厦門大學의 博物館과 圖書館의 所藏品 保護를 위해서 總督府의 要請으로 移川 等과 함께 中國의 厦門에 건너갔다. 1937년에는 軍屬으로서 日本軍이 占領한 廣州의 廣東에 가서 1年間 文化工作을 擔當하였다. 戰爭이 激烈해질 무렵, '寺廟整理運動'의 對策을 위해 宮本는 一時的으로 總督府文教局으로 자리를 옮겨서 寺廟問題의 處理를 담당하는 調査官에 임명되었다(宮本延人 1985: 47).[13]

1940年度 土俗學.人種學概論(二)

1941年度 土俗學.人種學概論(二)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1: 451-455, 1934年 發行 참조).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2: 421, 1935年 發行 참조).

1942년 이후에는 강의 제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당시 대학은 이미 전시체제에 편입되어서 강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전쟁을 대비한 각종 연구소와 위원회에 동원된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43년 陸軍司正官에 任命되어 자바의 宗教調査를 위해서 11월 중순에 赴任하였다(南方民族 7권 1.2호: 133). 日本의 敗戰 後, 臺北帝國大學은 中華民國國立臺灣大學으로 名稱을 變更하였고, 宮本는 그 引繼를 위해 同 大學의 教授로서 臺灣에 殘留하였다. 1948년에 圓滿한 引繼를 끝낸 후 歸國한 宮本는 1949년 東海大學에 教授로 就任하여, 1972년까지 教養의 文化人類學을 擔當하였다(馬淵 悟 1997). 宮本는 대북제국대학에서 文獻, 考古, 民俗資料의 整理 等 研究室의 基礎를 닦는 作業을 始作하였고, 그는 考古學, 形質人類學, 文化人類學 等 넓은 分野에서 研究業績을 남겼다.

馬淵東一(1909-1988)는 本籍이 長崎縣平戶市이고, 熊本第5高를 卒業한 후, 1928년 東京帝大 經濟學部에 進學했다가 한 달 뒤 5월에 개학하는 臺北帝大 史學科로 移籍하였다. 當時 東大 經濟學部의 雰圍氣는 마르크시즘 經濟學이 强하였고, 이미 第5高 時節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興味를 넘어선 馬淵는 그 해 5월 臺北의 移川教授를 집으로 찾아가서 土俗學教室에서 訓練을 받았다. 그 해부터 대만원주민 조사에 참가하였고, 1930년도 史學科卒業論文으로 "支那古代에서 片系와 双系"를 제출함으로서(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1: 460, 1934年發行), "土俗人種學教室의 最初이자 最後의 唯一한 學生"(山

13) "日本統治後半頃,… 特히 大東亞戰爭勃發後 그 傾向이 强하여져서, 日本內地에서는 國民精神昂揚運動이 높아가면서 臺灣에서도 皇民化運動이 극에 달했다. 그 일환으로 臺灣의 각부락에 있는 道教系의 寺廟를 廢止하는 運動이 일어났다. … 廢止된 寺廟의 神像을 한 장소에 모아서 燒却하였고, 우리들은 臺北帝大 土俗學研究室의 標本室에 部落全部의 神像을 모아서 保管한 마을의 경우도 있었다. … 사태가 심각해지고, 일본 내지에서도 비판이 일고, 대만 지식인들의 비판도 높아지면서, 總督의 指示로 宗教問題에 관한 協議가 있었다. 總督이 總長 幣原 坦씨와 相談하였고, 總長은 移川子之藏 教授와 協議하여, 당시 同 教室의 講師였던 筆者가 總督府文教局으로 자리를 옮겨서 寺廟問題의 處理를 맡았다"(宮本延人 1988: 3-4).

崎柄根 1992: 100)이 된 셈이다.

그는 1931년 3월부터 1932년까지 囑託으로 蕃地調査를 擔當함으로서 《臺灣高砂族系統所屬의 硏究》의 실질적인 자료수집에 지대한 貢獻을 하였다.[14] 1935년 6월 발행된 史學科職員名簿에 馬淵가 副手였으나, 1936년 9월에 발간된 名簿에는 馬淵의 이름이 없다.[15] 1937년 1월 그는 帝國學士院 인도네시아慣習用語辭典編纂部 事務囑託, 그 해 10월 日本民族學會 附屬民族學硏究所 硏究員이 되었다. 帝國學士院 囑託 古野淸人, 馬淵東一 兩氏는 蕃語調査의 目的으로 1938년 3월 10일 內臺, 南部와 東部의 高砂族을 調査하였다. 古野씨는 4월 9일, 馬淵씨는 4월 15일 離臺하였다(南方土俗 4권 4호 p.36). 1940년 10월 마부치는 滿鐵社員으로서 東亞經濟調査局에 勤務하였고, 1943년 6월 移川의 부름으로 母校인 臺北帝國大學 南方人文硏究所 所員 및 助敎授가 되어, 그 해 12월 海軍無給奏任囑託을 兼任하여 셀레베스(마카사루)와 쟈바에 出張갔다.

"馬淵敎授가 없었으면, 日本에서 東南아시아 島嶼部 民族學의 硏究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없었을 것"(大林太良 1988: 329)이라는 評價는 지극히 正當하다고 생각한다. 太平洋戰爭이 무르익어 갈 時機에 南方地域 專門家들은 여러 경로로 다양한 種類의 글들을 執筆하도록 要請받았다. 所謂 "大東亞共榮圈" 또는 "南方圈" 등의 用語들은 日帝의 侵略戰爭이 만들어낸 一種의 修辭法이었다. 당시 民族이라는 單語를 앞세워서 學者들에 의해 "大東亞民族"이라는 用語와 함께

---

14) 馬淵은 425일, 宮本은 129일, 移川은 88일 동안 現地에 滯留하였다. 移川의 "例言"(pp.1-2)《고사족계통소속의 연구》.

15) 1935년 6월 발행된 史學科職員名簿에 馬淵은 아직도 副手로 되어 있다. 臺北帝國大學 副手 規程(1939년 1월 制定), 第1條 學部에 副手를 두는데, 無給이다. 且 特別한 경우에 手當을 支給한다. 副手는 學士 또는 그에 相當한 資格이 認定된 자에 한하여 學部長의 推薦으로 總長이 囑託한다(臺灣總督府 1936: 31). 당시 副手는 月 50원을 받았다.

日本中心의 새로운 民族集團이 架空되기도 하고, 그러한 論理를 牽强附會하는 論考들이 적지 않았다(長谷部言人 1944). 馬淵는 그러한 用語의 驅使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細心한 면을 보였지만, 南方人文研究所의 助教授 職에 赴任하고 海軍으로부터 賦與된 任務를 遂行하는 等 全體的인 侵略戰爭의 構圖를 回避할 수는 없었다. 戰爭과 學問 사이에서 主觀의 破片化 구도를 피할 수 없었던 知識人의 立場과 苦悶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馬淵는 그의 論文에서 "所謂 '南方圈'의 範圍"(馬淵東一 1943: 158)라는 表現을 使用한다. 馬淵가 '南方圈'이라는 用語의 使用에 對해서 最小限度 消極的이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그 表現의 方式이 南方圈이라는 單語 앞에 "所謂"라는 單語를 添加하고 南方圈이라는 單語를 꺾쇠 속에 집어넣었다. 間接的인 證據일 수 있지만, 馬淵를 除外하고는 이 年鑑의 어떤 執筆者도 "南方圈"이라는 單語 앞에 "所謂"라는 但書를 붙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注目하고자 한다. 그리고 題目인 '南方圈의 社會' 다음에 括弧를 使用하여 '南方原住民의 社會'를 附記하고 있다. 아마도 원래 馬淵가 執筆依賴를 받았던 原稿의 題目은 '南方圈의 社會'였을 것이고, 馬淵가 提出했던 原稿의 題目은 '南方原住民의 社會'였던 모양이다. 南方圈이라는 用語를 忌避하려는 馬淵의 意志와 企劃 側의 意圖가 折衝된 題目의 表現이 "南方圈의 社會(南方原住民의 社會)"로 結末이 난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같은 〈南方年鑑〉에 실려있는 古野清人의 論文 "南方圈의 宗教"에 登場하는 表現들을 馬淵의 立場과는 對照的인 것으로 指摘할 수 있다. "大東亞共榮圈內에 있는 數百萬을 皇化해야함이 要請되고 있다"는 古野清人의 주장과 馬淵의 표현은 지극히 대조적이다. 古野가 작성한 논문의 前後 脈絡으로 보아서 古野의 위와 같은 文章이 없더라도 本文의 內容에는 전혀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表現을 中間에 挿入한 것은 當時 古野라는 著者의 政治的 立場을 表現하는 方式으로 理解할 수 있다.

土俗·人種學은 史學科의 1科目인 講座였다. 官制上 獨立된 科에는 敎授, 助敎授, 助手가 一般的이었지만, 科가 아닌 敎室은 敎授, 助手 뿐이었다. 그러나 토속학 교실이 사용하던 건물은 다른 講座들의 몇 倍의 면적에 달하였고, 硏究를 中心으로 한 科目이 있었다. 이러한 配慮는 당시 日本의 南方政策의 一環이었다는 推測이 어렵지 않다. 土俗·人種學은 專攻科에 속한 것이 아니라 共通必須科目이었는데, 史學科의 學生들은 必須로 受業하였다. 그럼에도 專攻必須는 아니었다. 요컨데 植民地의 大學에서 文政學部의 文系에 속한 學生들은 土俗·人種學槪論을 전부 受講하도록 하였다(宮本延人 1983b: 34. & 1985c).

1934년경 土俗學敎室의 近況으로는 敎授 移川子之藏, 助手 宮本延人, 副手 馬淵東一가 있으며(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硏究年報 1: 461, 1934年 發行), 史學科 學生을 中心으로서 構成, 硏究事項의 發表討論하는 모임이었던 歷史讀書會記事에서 토속학관계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예를 들면, 第2回 1930년 6월 7일: 臺灣蕃人의 喪服의 期間, 馬淵東一, 第8回 1931년 5월 9일: 埔里社의 話, 宮本延人, 第25回 1933년 2월 18일: 파이완族 아미族 그 이외에서 屍體埋葬의 方向, 馬淵東一(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硏究年報 1: 457-459, 1934年 發行) 등이 있다.

자료수집의 활동이 빈번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수집품들은 필연적으로 附屬標本室을 요구하였고(1933년 9월 起工), 1934년 4월 落成과 함께 陳列을 完成하여, 5월 17일 本學開學記念日을 기해서 開館하였다. 大陳列室은 高砂族土俗品을 주로 하였고, 考古學關係品을 小室에(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硏究年報 2: 422, 1935年 發行) 배치하였다. 一般 土俗學人種學硏究와 함께 臺灣에서는 原住民의 土俗資料蒐集은 急先務라는 인식의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그 蒐集에 힘을 쏟아서 1936년 3월 伊能嘉矩氏 所藏의 臺灣關係書籍 以外에 蕃族關係의 土俗品 137種類 약 三百點을 購入하였다. 그

후 研究室諸員의 原地蒐集에서 소위 高山蕃族(生蕃) 및 平埔族(熟蕃)의 土俗品, 遺蹟發掘로부터 遺物 등을 1905種 약 2500點을 所藏하게 되었다. 그 외에 南洋 뉴기니아, 파푸아族, 비율빈 이고로族, 支那福建省蕃族의 土俗品 및 南部支那發見의 古代銅鼓 등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一室에 陳列하여 土俗標本室을 만들었다. 건축중인 北研究室이 完成되면, 그 일부를 충당할 것(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1: 455, 1934年 發行)이라는 기록도 대북제국대학의 토속학 연구에 대한 심도있는 배려를 실증하는 부분이다.

臺北帝大 開學 8週年인 1936년에 文政學部資料展覽會(5월 17일, 18일)의 제3室과 제4室에는 史學科 關係의 자료를 주로 전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4室은 土俗學에 한정하여 배정되었다. 그 내용물들은 다음과 같았다. 1). 歐洲舊石器時代遺物(土俗學講座出品), 2). 臺灣石器時代遺物(同上), 3). 高砂族土俗資料(同上), 4). 臺灣周圍의 諸民族土俗資料(同上)이었고, 제3室의 6番에도 "我領土內의 原住民族에 關한 文獻"(土俗學講座出品)이 진열되었다. 즉 講座別로 展覽會의 展示物을 出品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南方土俗 4권1호: 62-63, 1936년), 당시 전시의 주역은 토속학 교실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북제국대학 내에서 토속학 교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는 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토속학교실의 연구활동은 廣義의 人類學을 추구하였다. 타츠키리 遺跡의 調査, 花蓮港廳의 타츠키리 峽口의 海岸의 土中에서 土器, 人骨 등 出土品을 發見하였으며, 이 유적에서는 金細工品도 出土되었다. 1936년 10월 중순 약 1주간 移川 教授는 宮本 助手를 同伴하고 現場調査를 하였다. 高砂族의 言語와 音樂의 레코드 吹入도 시도하였으며, 이 작업은 高砂族의 固有音樂과 言語를 保存하는 意味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音聲學과 音樂理論의 研究資料를 目的으로 레코드 製作을 言語學研究室과 協同으로 開始하였다. 그 결과물은 9枚 18面으로 製作되었다(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4: 581,

1937年 發行).

"토속인종학연구실은 … 동경제국대학이과의 인류학교실이 자연인류학을 주체로 한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문화·사회인류학 관계에서는 일본 최초의 유일한 교실이었다. … 그 주변에 모인 동호의 지사들로는 社會學의 岡田 謙, 解剖學의 金關丈夫, 言語學의 小川 亨, 淺井惠倫, 農業經濟學의 奧田 彧, 그 뒤에 考古學의 國分直一 등도 교실에 관계하였고, 본토에서 연구조사차 방문한 古野淸人도 어느 정도 교실을 방문하였다"(山路勝彦 1999: 74). 남중국과 남방의 경영을 겨냥하여 설립된 대북제국대학의 그늘을 토속·인종학교실은 능가하고 있었다. 사실상 본토에서 이룩해내지 못했던 문화인류학과 민족학 부분의 연구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유일한 곳이 移川의 교실이었으며, 그 후광은 戰後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

교실 창설 다음해인 1929년도에 결성된 南方土俗學會는 土俗·人種學教室을 母胎로 하여 조직되었으며, 1931년부터 〈南方土俗〉을 發刊하기 시작하였다. 〈南方土俗〉의 英文名稱은 *The Ethnographical Journal of the South-East Asia, Oceania and Taiwan, Nanpo Dozoku*이다. 移川가 이끌었던 南方土俗學會의 영문명칭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土俗學"의 의미가 "ethnography"라는 점을 재확인하게된다. 이 회는 1929년 12월부터 1938년 11월까지 만 9년 간 40회의 例會를 개최하여,[17] 사실상 대북인류학파의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16) 東京大學의 人類學教室은 理學部에 設置되어서 考古學의 硏究와 民族學의 硏究를 행하였다. Ethnology라는 단어에 대해서 1928년에 나온 三省堂의 英和辭典에는 人種學, 民族學, 土俗學으로 說明되어 있다. 文化人類學이라는 名稱을 最初로 使用한 사람은 西村眞次교수인데, 大正年間에 發行된 〈文化人類學〉이라는 책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宮本延人 1983b: 33).

17) 南方土俗學會 例會
第1回 1929년 12월 2일: 阿眉族의 稱號 빤츠아에 關한 2·3 考察, 移川子之藏

第2回 1930/1/27: 파이완 玉에 就하여, 宮原 敎
第3回 2/27: 카타미 攻, 幣原 垣
第4回 3/31: 腕輪에 就하여, 尾崎秀眞
第5回 4/30: 花蓮港花岡山의 遺跡, 宮本延人
스마트라 及 브라질, 阿部文夫
第6回 5/26: 셀레베스島를 主로한 南洋의 風俗, 三吉朋十
第7回 7/1: 티모르島 旅行談, 早坂一郎
第8回 10/23: 紅頭嶼 야미族과 南列한 바탄 島들, 移川子之藏
第9回 11/29: 사이시야츠族에 就하여, 藤崎濟之助
第10回 12/22: 本島人個有의 宗敎, 增田福太郎
第11回 1931/2/2
第12回 3/16: 카바란族의 意義 及 其의 移動, 幣原 垣
第13回 4/13: 셀레베스島 及 臺灣蕃人, 三吉朋十
第14回 6/1: 苗族의 文字에 就하여, 前島信次
第15回 9/5: 年齡階級의 社會史的 意義, 岡田 謙
第16回 11/5: 黃叔璥의 臺灣蕃社圖에 就하여, 山中 樵
第17回 12/21: 蕃語에 나타난 土俗의 數例, 小川尙義
第18回 1932/3/4: 左手利와 左眼利에 就하여, 力丸慈圓
第19回 6/1: 이모 語源考序說, 安藤正次
第20回 10/9: 家畜의 起源과 그 傳播, 山根甚信
第21回 12/24: 鄭和에 就하여, 桑田六郎
第22回 1933/216: 比律賓에서 金銀에 就하여, 小葉田 淳
第23回 10/7: 臺灣의 原始土器의 信仰에 就하여, 宮本延人
第24回 11/29: 南支南洋方面旅行談, 東恩納寬淳
第25回 1934/1/20: 宗敎民族學의 一傾向, 古野淸人
第26回 3/17: 파이완 族의 大祭五年祭에 就하여, 宮本延人
第27回 6/7: 야루-트 島의 話, 平田 甫
第28回 9/14: 內地人, 本島人, 高砂族 體質의 硏究, 森 於菟
第29回 12/8: 沖繩의 旅行談, 須藤理一
第30回 1935/6/15: 五家莊及對馬事情 力丸慈圓,
臺灣의 行政地域과 地名에 就 水越幸一,

셈이다.

南方土俗學會에는 新入會員으로서 臺北州理蕃科 勤務者, 臺南州의 各警察署와 各郡의 警察科, 高雄州警務部理蕃科, 個人들로는 各州警務部理蕃科와 警察科 및 各支廳 勤務者들 38명이 대거 입회(南方土俗 1935년 7월호, 89-90페이지)한 적이 있었다. 즉 대북제대 토속인종학 교실이 생기기 이전에 축적된 대만원주민 관계의 자료와 연구인력들을 대북인류학파에 총집결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다. 1931년 〈南方土俗〉의 발간을 시작하였는데, 1925년에 동경에서 인류학연구 잡지인 〈民族〉과 1929년에 〈民俗學〉 그리고 1932년에 〈도루멘〉이 발간된 배경과 비교해봄으로서 이것의 학문적인 의미와 학계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南方土俗〉은 1938년이래 년 1회 발간의 "季刊誌"가 되었고, 태평양전쟁이 고조되었던 1944년에 7권1호로 폐간되었다.

南方土俗學會의 1940년도 役員으로는 幹事 移川子之藏이고, 1941년 現在 役員으로는 會長 移川子之藏, 理事에 金關丈夫, 宮本延人 등

第31回 6/22: 比律賓의 山과 海, 三吉朋十

第32回 1936/2/20: 모-나.루다오의 最後, 水越幸一

第33回 6/6: 臺灣의 石敢當에 就하여, 尾崎秀眞

파이완 族의 燒成과 傳來하는 壺에 就하여, 宮原 敦

第34回 1937/1/23: 比律賓 산파레스.니그리토 族 調査報告豫報, 淺井惠倫

未開社會에서 思惟觀念의 發達經路에 就하여, 移川子之藏

第35回 5/14: 臨時臺灣舊慣調査會에 就하여, 大里武八郎.堀田眞猿

第36回 9/25: 歐洲旅行談, 移川子之藏(臺北人類學會와 共同)

第37回 11/17: 沖繩의 音樂 比嘉盛章

第38回 1938/2/16: 高砂族 莖 '다오'와 南方民族 移川子之藏, 埔里大馬隣石器層試掘報告 淺井惠倫,

第39回 3/19: 埔里大馬隣發掘品供覽, 에티오피아의 報告映畵

第40回 11/19: 사이샷트族 빠스타아이祭(映畵 및 레코드 使用), 移川子之藏, 宮本延人

11명, 幹事 4명, 編輯委員 9명중에 主任은 岡田 謙, 宮本는 理事, 幹事, 編輯委員을 겸임하고 있으며, 1941년에 南方土俗學會의 體裁를 擴大整備한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이후 理事 岡田 謙 씨는 東京高等師範學校로, 須藤利一씨는 第一高等學校로 轉出함에 따라서 새로 久野芳隆, 馬淵東一, 姬岡勳, 陳紹馨 4씨를 理事로 영입하였다(南方民族 7권 1·2호: 134). 會長과 理事의 南方出張에 관한 정보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會長 移川子之藏 教授와 理事 久野芳隆교수, 馬淵東一助教授는 海軍省囑託으로서 마카사-루 研究所 慣行調査部의 開設事務를 위촉받고, 移川 會長은 1943년 11월 19일 마카사-루로 갔으며, 資料蒐集을 위해서 남부 셀레베스, 자바, 발리섬의 각지를 시찰한 후, 1944년 1월 14일 歸着하였다. 馬淵 理事는 1943년 12월 25일, 久野 理事는 1944년 1월 5일에 마카사-루에 갈 것이다. 宮本 理事는 陸軍司正官에 任命되어 자바의 宗教調査를 위해서 지난 11월 중순에 赴任하였다(南方民族 7권 1·2호: 133). 理事 小葉田淳 助教授는 海軍囑託으로 海南島海軍特務部의 위촉으로 島史編纂에 착수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현지답사를 한 후, 탈고하였으며, 海南島海軍特務部의 認可를 얻어서 東都書籍出版에서 刊行할 것(南方民族 7권 1·2호: 134)이라고 하였다.

土俗學教室을 中心으로 한 學者들의 活動狀況을 一別해보면, 몇 가지의 傾向이 나타난다. "臺北帝國大學의 土俗人種學教室의 活躍과 前後하여, 岡田 讓, 古野清人가 高砂族調査를 開始하여 岡田는 '未開社會에서의 家族' (1942)을, 古野는 '高砂族의 祭儀生活' (1945) 等을 著述하여 高砂族各族의 社會構造의 分析을 試圖하였다. 岡田와 古野는 대체로 英國 機能主義的人類學派의 骨幹에 있는 래드클리프-브라운의 影響을 强하게 받았고, 그들의 業績은 후일 日本의 機能主義的人類學의 礎石이 되었다"(馬淵 悟 1987: 237).

그 중에서도 土俗學教室 및 移川.宮本.馬淵와 密接한 關係를 맺었

던 사람은 鹿野忠雄다. 그는 "1925년 臺北高校에 入學하여, 昆蟲 등 生物學 關係에 興味를 갖고, 高砂族의 文化人類學的 硏究에도 관심을 가지고, 토속학교실을 따라서 紅頭嶼 調査(1929년 봄)에 참여하여, 單獨으로 調査를 나가서 昆蟲이나 새 그리고 小動物을 採集하고 밤에는 아세치렌 람프로 燈火採集을 하였다. 鹿野는 이 調査에서 多數의 새를 剝製로 만들었다"(山崎柄根 1992: 102 & 宮本延人, 瀨川孝吉, 馬淵東一 1987: 31). 그 後 東京帝國大學理學部地理學科에 入學하여 卒業하였고, 臺灣總督府理蕃課와 警務局警務課의 囑託으로서 臺灣과 東南아시아의 文化史的 硏究를 하면서 月給 70원을 받았다(臺灣總督府 1936: 146-148). 그는 日本拓殖協會의 囑託도 兼하였다(山崎柄根 1992: 244). 그의 최후 논문은 1943년 6월에 脫稿되었고, 1943년 7월부터 1944년 3월까지 필리핀으로 가서 民族學 硏究에 沒頭하였다(鹿野忠雄 1944: 569). 1945년 보르네오 調査 中 38歲에 行方不明되었다(山崎柄根 1992: 320).

鹿野와 같은 사람은 當地의 資料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다. 當地로의 派遣이 政治軍事的인 目的임을 把握했음에도 不拘하고, 自身의 硏究를 위해서 精進한 사람이다. 鹿野는 現地의 資料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라도 어떠한 狀況에라도 資料를 따라 간 徹底한 필드워커였다. 그의 報告書와 論文에는 自身이 蒐集하고 分析한 資料에 대해서만 言及되어 있지, 政治的인 修辭學과 關聯된 一切의 論議가 없다. 戰爭과 軍隊가 무어라고 하든 간에 相關않고, 資料가 있는 곳이라면, 學術資料의 蒐集이 可能하다면 전장터에도 들어갔던 사람이다. "鹿野忠雄가 臺灣人類學史의 發展에 끼친 資料的 發掘은 永遠한 貢獻"(許木柱 1993: 145)으로 認定되고 있다. 그는 스케치에도 能했다. 그의 日記帳과 약간의 資料들은 國立民族學博物館 圖書室에 保管되어 있는 泉 靖一 資料 속에 包含되어 있다. 어떠한 經緯를 통해서 鹿野의 個人物件들이 泉의 짐 속에 들어있는가?

臺灣에서 人類學分野로 활동한 學者로서 移川의 敎室 以外에 가장

많은 業績을 낸 사람이 醫學博士 金關丈夫라고 말할 수 있다. 京都帝國大學 助教授로부터 臺灣總督府 醫學專門學校 教授로 轉任되는 것을 계기로, 官命에 의하여 解剖學과 人類學研究의 目的으로 1934년 9월 16일 臺灣을 經由하여 약 1년 반 歐米 遊學의 장도에 올랐다(도루멘 3권 10호 77페이지). 그는 臺北帝大에 醫學部가 開設된 1936년 解剖學第2講座의 教授로 招聘되었다(山崎柄根 1992: 229). 臺北帝大 醫學部의 開學과 함께 東京帝大 森於菟 교수, 宮內悅藏 조수, 京都帝大에서 金關丈夫 교수 등 三氏가 공히 醫學部 解剖學教室에서 대만의 人類學研究에 努力(南方土俗 4권 1호: 61. 1936년)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金關교수는 경도제대문학부에서 인류학도 강의한 경력이 있었고[18], 대북제대에 부임한 후에는 "文學部土俗人種學教室에서 週二時間 '體質人類學概論'의 特別講義"(宋文薰 1983: 49)도 하였다.

그는 1942년 海軍의 委囑으로 海南島에서 人類學的調査를 하고, 밤에 原住民의 墓地를 發掘하여 人骨을 海軍機로 臺北에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고(네즈 마나시 1983: 36), 나치스 理念에 立脚한 獨逸式 人種主義를 底邊의 論理에 깔고 優生指導政策을 標榜(金關丈夫 1941)한 적도 있다. 그가 主管하던 學術雜誌 〈民俗臺灣〉의 編輯後記는 "大東亞建設을 위하여 本誌에서도 큰 使命感을 자각하여 編輯員一同은 다시금 奮鬪努力을 할 覺悟가 되어있다"(〈民俗臺灣〉 編輯後記(20호, 1943년 2월 발행 p.48)고 함으로서 大東亞圈 讚揚의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었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 데에는 당시 "大東亞"라는 키워드를 앞세워서 민속학의 기치를 높이 세웠던 柳田國男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19] 1943년 10월에 동경의 柳田國男 집에서 〈民俗臺灣〉의 방향을

18) "(金關先生이) 1936년 臺北帝國大學으로 赴任하였기 때문에, (京都帝大)文學部에서 先生이 擔當하였던 '人類學概論'을 受講하지 못했다"(角田文衛 1983: 72).

설정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大東亞民俗學의 建設과 '民俗臺灣'의 使命 — 座談會: 柳田國男氏를 圍"라는 제목이었다(時: 10월 17일 오후, 所: 東京柳田國男氏邸)(民俗臺灣 30: 2-15). 참석자는 柳田國男, 橋浦泰雄(民間傳承編輯者), 岡田 謙(東京高師教授), 中村 哲(臺北帝大教授), 金關丈夫(臺北帝大教授)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일부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柳田: 大東亞의 民俗學會가 相互(협력하고) … 大東亞圈民俗學(의) … 目標로서 … 大東亞圈의 諸民族의 사이에 어떠한 共通 題目(을 설정하고), … 朝鮮의 秋葉 君, 滿洲의 大間知 君 등도 참석한다". "金關: 一年에 일회씩 東京에서 콩그레스를…"(民俗臺灣 30: 2-15) 실시한다는 등의 논의였다. 柳田國男先生古稀記念會 主催의 民俗學大會를 개최함에 있어서 大東亞圈內의 諸民族이 今後 一層緊密한 協同團結할 必要性을 痛感하여 "國際共同研究課題의 提案"(1944년)되었고, "異境人, 祖先, 結婚道德"의 세 가지 主題를 提示하였다(民俗臺灣 35: 25). 이러한 주제들은 1943년의 〈民俗臺灣〉 30호에 실린 座談會에서 제시되었던 것들이다.

金關丈夫가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民俗臺灣〉은 "臺灣本島 및 關聯諸地方의 民俗資料를 蒐集記錄"하며, "단지 民俗에만 限定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鄕土의 歷史, 地理, 自然誌 等의 諸方面에도"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民俗臺灣〉 創刊號의 趣旨文에서). 이 잡지의 編輯兼發行人은 末次 保이고, 실질적인 책임은 金關丈夫가 맡았으며,

---

19) 이 民俗學은 柳田가 設立한 民俗學會이고, 民俗學은 民間傳承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學問이라고 發起文에 명시되어 있다. 그 위원은 "會津八一, 秋葉 隆, 有賀 喜左衛門, 伊波普猷, 石田幹之助, 移川子之藏, 宇野圓空, 岡 正雄, 折口信夫, 金田一京助, 小泉 鐵, 今 和次郎, 中山太郎, 西田直二郎, 早川孝太郎, 松村武雄, 松本信廣, 宮本勢助". 1930년에는 위원명단을 조정하여, 위원에 石田幹之助, 宇野圓空, 折口信夫, 金田一京助, 小泉 鐵, 松村武雄, 松本信廣(在京委員), 秋葉 隆, 移川子之藏, 西田直二郎(地方委員)으로 구성되었다. "在京"과 "地方"을 구분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창간호뿐만 아니라 주로 卷頭語를 작성하였다. 創刊號에 글을 실은 사람으로서 陳紹馨(臺北帝大土俗人種學研究室), 松山虔三 寫眞家(臺北帝大土俗人種學研究室)도 포함되었다. 즉 대북제국대학 土俗人種學研究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도 지적할 수 있다. 〈民俗臺灣〉은 1941년 7월 月刊으로 創刊되어 "風俗.習慣의 研究와 紹介"라는 선전문구를 달고 시작하였다.

〈民俗臺灣〉은 '民俗採訪의 會'도 운영하였다. 예를 들면, 제7회 '民俗採訪의 會'는 2월 14일 臺北市公會堂에서 開催되었고, 講師는 楊雲萍 씨로서 '考證雜話'가 주제였다. 會費는 50錢(p. 48)이라고 하였다(〈民俗臺灣〉 20 編輯後記). 金關丈夫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936년 4월 開學한 臺北帝大解剖學教室을 中心으로 同年 5월 臺北人類學談話會가 結成되었고, 1937년 5월부터 每月 例會를 開催하였다.[20]

金關丈夫를 중심으로 하여 대북제대의 해부학교실은 체질인류학적

---

20) 臺北人類學談話會의 例會 내용

제1회 1937년 5월 27일 臺灣熟番의 頭蓋에 대하여(金關丈夫), 코카사스 地方 瞥見(富田雅次),

제2회 6월 26일 言語學과 人類學(淺井惠倫),

제3회 9월 25일 歐洲旅行漫談(移川子之藏),

제4회 10월 25일 高雄州墾丁의 遺跡(宮本延人),

제5회 12월 18일 血液型分配率로 본 '타이야루' 各部族의 近親關係에 대하여(丸山芳登),

제6회 1938년 1월 29일 東亞의 古人類(金關丈夫),

제7회 2월 15일 臺灣蕃人의 喫煙具(瀨川孝吉)(南方土俗 4권4호 p.35-36, 1938년),

제9회 9월 23일(금) 오후 7시 반부터 臺北市公會堂小集會室에서 開會되었다. 미크로네시아見聞錄(鈴木政雄), 與那國島民의 土俗과 體質(兼長 弘, 和田格, 宮內悅藏)

(南方土俗 5권 1.2호: 71, 1938년).

인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함에 있어서도 결코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들의 작업은 대만과 오키나와 그리고 남양으로 이어지는 비교연구의 선상에서 수행되었다. 沖繩縣與那國島의 人類學的 調査가 臺北帝大解剖學教室 宮內悅藏, 和田格양씨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그들은 基隆을 出發하여 선편으로 학생 4명을 동행하고 沖繩縣與那國島에 도착하였다. 남녀 각 백 명의 生體調査, 동 각 이 백 명의 手掌과 足紋의 수집, 頭蓋내지 많은 土俗學的 事項을 採集하였다(南方土俗 4권 4호 68, 1938). 高砂族의 體質人類學的 研究도 解剖學教室 金關丈夫에 의해서 수행되었다(南方土俗 4권 4호 68, 1938). 대북인류학파의 업적들을 종합하여 보면, 넓은 의미의 인류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세부 전공으로 분할되어서 각기 활동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인접의 세부 분야들이 협동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들의 성과를 보였다.

당시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대북인류학파의 관계자들이 대거 전쟁 수행을 위한 보조 역할의 연구를 위해서 사정관이나 촉탁 등의 직함을 갖고 남방의 각지에서 자료 수집 활동을 수행하였던 대목은 총동원령 산하의 인류학적 작업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다. 우츠시카와와 그의 교실이 "'無主의 野蠻人'이라는 총독부의 인식틀에 정면 도전함으로서 식민지주의 전략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山路勝彦 1999: 86)고 평가하는 것은 당시의 식민통치라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 우츠시카와도 총독부와 해군의 업무를 받아서 점령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과소 평가하게 되면, 그를 소영웅주의에 빠진 사람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코 우츠시카와가 식민통치를 하던 총독부에 정면 도전했던 흔적은 전혀 없다.

1935년부터는 南方土俗學會의 例會에서 해온 研究發表會가 過去보다 적어지기 始作하였고, 1939년부터는 아예 例會도 열리지 않은 것 같다. 1939년부터는 移川教授의 大學講義도 적어지고, 1942년부터는

아예 講義題目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記錄을 當時에 있었던 事實로서 받아들인다면, 帝國大學의 敎授들에게는 中日戰爭 以後 그리고 太平洋戰爭으로 이어지는 侵略戰爭의 雰圍氣가 飛火하는 만큼 大學本分의 以外에 다른 일들이 많았다는 間接的인 證據로 看做할 수 있다. 그러한 狀況이 人類學으로 하여금 軍屬이 되도록 하는 過程을 밟았다고 說明할 수 있다.

2) 京城人類學派

"京城人類學派"라는 용어는 경성제대 출신의 일본인들이 후일 일본에서 동창회를 조직한 뒤에 제작한 단어이다(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纂委員會 1974). 경성제국대학 내의 인류학 연구자들을 하나의 학문적인 흐름 덩어리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때 경성인류학파는 法文學部 宗敎及社會學敎室에서 사회인류학을 연구했던 秋葉 隆와 그의 제자인 泉靖一의 업적과 의학부 해부학 교실의 今村 豊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체질인류학적 연구 업적들로 대별되는 것이며, 양자가 협동하여 연구작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학파로서 불려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宗敎及社會學 교실에 사회학 담당 조교수로 부임한 秋葉 隆의 경력과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학은 교실의 교수로 부임했던 赤松智城가 담당하였다. 赤松智城는 山口 출신으로서 동경제국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마나'에 관한 宗敎人類學的 論文들은 그가 京城帝國大學에 赴任하기 前에 作成한 글이고, 처음 것(1926년 3월 發行)은 경성제국대학에 赴任以前에 發行된 것이다(赤松智城 1926). 그가 조선에서 주로 샤머니즘에 관심을 갖고 사회학 전공자인 아키바와 함께 공동연구를 하기도 하였다.

아키바가 경성제국대학 재외연구원으로 발령을 받고 유럽을 유학을 떠난 것은 1924년이다. 1년 10개월 간 유학에서 그가 습득했던 학

문적 성과와 영향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요한다. 秋葉 隆 學士의 런던 住所는 227 Valley Road, Streatham, London, S.W.16였다. 1925年 6月 29日 日本社會學會로 보낸 便紙의 內容이 1925년에 출판된 社會學雜誌(17: 100-101)에 수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小生은 런던大學과 브리티쉬博物館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웨스터마크 교수는 모로코에 홉하우스 교수는 프랑스에 말리노브스키 박사는 이태리에, 긴스버그 박사는 시골에서 硏究와 保養을 하는 計劃이다. 나는 週 二回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페리 씨 硏究室에 나간다. 웨스터마크 선생은 63세의 老齡으로 6척의 우람한 체구, 과거 20년 간 모로코에 硏究地를 設置하여 每年 여름을 아프리카에서 每年 겨울을 핀란드에서 硏究와 講學을 한다. 말리노브스키 박사는 다년간 뉴기니 東部에 관한 硏究를 속속 출간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하여 健康을 헤쳤다. …大陸學派의 理論은 當地 사람들의 口調에 根據하여 …嚴密한 모노그라프를 作成함에 腐心하고 있다".

秋葉가 主로 時間을 보낸 곳은 런던大學 內에 있는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페리 硏究室이었다. 페리의 學問傾向은 傳播論이었다. 秋葉가 웨스터마크나 말리노브스키의 學問을 直接的으로 密接하게 傳授받은 것은 아니고, 그들 中心으로 進行되고 있었던 民族誌 모노그라프 作成에 큰 關心을 보였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秋葉가 귀국 후 1928年에 第一 먼저 出刊했던 論文("女國의 多夫婚姻에 就하여", 社會學雜誌 51: 1-26)을 보면, 그가 當時 말리노브스키를 中心으로 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學問傾向의 內容을 深刻하게 영향받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1928年 그 논문과 1929年에 同一한 社會學雜誌에 發表하였던 "Intensive Method"에 關한 두 論文은 全혀 다른 傾向의 內容이다. 留學을 떠나는 1924年 以前에 作成되었던 그의 論文은 그의 留學期間 中에 實質的으로 전혀 內容變化가 없었다는 얘기다.

아키바는 유럽에 있는 동안에 "…民俗學人種學方面의 博物館을 30

館 以上 보았다"(秋葉 隆 1927a: 123). 아마도 그의 2년 간 유학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된 부분이 박물관 참관이었고, 그 경험을 "博物館巡禮"(秋葉 隆 1927a & 1927b)라는 연재물로 다듬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험이 후일 경성제대에서 그로 하여금 '朝鮮民俗參考品室'을 설치하게 하였고, 그것이 '陳列館'(박물관)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로 하여금 사회학보다도 인류학과 민속학 쪽으로 기울게 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박물관과의 인연일 것이다.

秋葉는 1926년 11월 2일 영국에서 일본에 돌아왔다. 11월 29일 아키바는 동경사회학회 제24예회에서 '브루타뉴의 혼인풍속'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그 해 12월 23일 일본사회학회연구회에서 '靐(계집여변)屋에 대하여'를 동경대학에서 발표하였다. 1928년 일본사회학회 제4회 대회(11월 3일)에서 주제는 '사회학연구법'이었는데, 아키바가 거기서 "'Intensive Method'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그때 그 자리에서 鈴木榮太郎(岐阜高農教授)가 '農村社會學研究法'을 발표하였다.

혼례민속의 하나인 "奠雁"에 관한 아키바의 글(秋葉 隆 1928a)은 심화적 방법의 결과에 의한 작품이 아니다. 조선 13도 전체에서 샘플로 17군데를 주마간산격으로 지나가면서 수집된 자료들이다. 자료수집의 방법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증언이 이 글의 맨 뒷편에 첨언되어 있다. 옛문헌에서도 인용하고, "일년 여 스스로 조선의 혼인습속을 조사함에 있어서 여행 중 지방 제인사의 호의, 여름방학동안에 鄕里의 習俗을 조사하여 가지고 온 학생제군들에 감사한다고. 加藤灌覺氏의 field worker로서의 재능에 크게 힘입었다. 평남 서흥의 조사에서 씨의 노력을 감사한다"(秋葉 隆 1928a: 86)고 술회하였다.[21]

---

21) 카토칸카쿠는 아이치 출신으로서 明治3年 생이다. 1933년 동경제국대학 이과대학에서 인류학고고학강좌를 청강하였다. 1935년에 수료함과 동시에 同

秋葉가 이루었던 學問傾向은 1928年에서 1929年으로 넘어가면서 즉 京城帝大에 赴任한 이후, 유럽유학 중에 重點的으로 硏究했던 것이 아니라 어깨너머로 보았던 것을 京城帝大에서 實踐하는 契機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理解하고 싶다. 그것이 植民地 朝鮮에 建立되었던 帝國大學의 目的과 附合되는 것이었음을 確認하고 實踐하였던 것이다. 1926年 京城帝大에 赴任하는 過程의 船便에서 偶然히 그가 읽었던 今村 晛의《朝鮮民俗考》를 보는 순간 그는 새삼스럽게 말리노브스키의 作業을 想起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1929年의 論文을 作成하는 契機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京城帝大에서 그가 해야하는 學問의 方向을 잡고, 그 方向이 바로 自身이 런던에서 건너편으로 보았던 필드워크이며 모노그라프 作成이라는 点을 確信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1925年에 社會學會로 보냈던 便紙의 內容이 1929年의 論文(1928年 11月 2日 脫稿)과 直結되는 점을 알 수 있다. 今村 晛의 古稀記念論文集(朝鮮民俗 3號)을 自身의 손으로 엮어서 出版 贈呈하는 理由가 이런 곳에서 一部나마 찾아질 수 있다.

아키바의 1928년과 1929년에 출간된 두 편의 논문은 19世紀의 進化論的인 立場에서 아마츄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한 西洋文獻들을 中心으로 整理한 論考로서, 전혀 당지연구의 感覺이 없는 狀態라고 단언할 수 있다. 1928年 7月 1日에 發行된 雜誌에 秋葉의 所屬은 "京城大學敎授"로 되어 있는 것과 原稿의 作成完了 日字를 表示하는 것일 수 있는 "昭和 3. 5. 16"이라는 原稿 末尾의 날자, 註釋 26番에 나타나고 있는 "京城日報" 云云, 그리고 附言에 "歸朝 後 東洋文庫에서 白鳥先生을 뵈었는데, 先生의 …제일 처음 말씀이 女國의 參考論文에 대한

대학 인류학회 촉탁으로 露國에 유학하였고, 1941년 人類學 및 考古學 연구를 위해 조선전체를 실사하였다. 朝鮮總督府學務局編修課及同局練成課 囑託으로 施政記念館 主任으로 근무하였다. 그의 주소는 京城府 中區 倭城臺町 施政紀念館內로 되어 있다.

것이었다. 이것은 渡歐 前에 先生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宿題였다"를 보면, 이 論考는 그가 유럽 遊學 以前에 作成했던 글을 渡歐 中에 蒐集했던 資料로 補充해서 作成했던 글이다. 以後에 登場하는 그의 著作物들이 現地踏査를 基盤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京城帝國大學에 赴任하면서 그의 學問의 傾向은 一大變換의 經驗을 겪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1929년 〈宗教研究〉라는 논문집에 실린 글도 동일한 궤적의 경향을 보임으로서 앞에 나온 1928년도의 〈社會學雜誌〉에 실린 것과 유사한 종류의 글이다. 즉 영국 유학에서 습득했을 법한 당시 사회인류학파의 영향을 전혀 읽어볼 수 없는 내용이다.

1929년에 〈社會學雜誌〉에 수록된 논문 'Intensive Method'에 관한 논문은 "具體社會에 대한 特殊研究의 一方法으로서 'Intenstive Method'를 主張하고 있다"(秋葉 隆 1929b: 10). 그러나 그 논문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秋葉는 그 方法의 겉만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方法이 推進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側面인 機能主義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을 하지 않고 있음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한다.

어떻든 그가 언급했던 "深化的 方法"을 기초로 하여 연구한 결과들은 질적인 깊이에 상관없이 193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며, 그 내용은 거의 샤머니즘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것은 종교학자 赤松智城의 관심과도 결부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赤松智城 1929 & 1935 참조). 1932년도에 〈宗教研究(新)〉에 출판된 아키바의 논문은 帝國學士院 研究費 支援으로 赤松와 함께 作業한 것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나는 지난 3年間 全鮮에 散在한 60個所 邑落을 訪問하여, 巫家 特히 巫女의 家를 三百戶 訪問하였다"(秋葉 隆 1933a: 116). 〈도루멘〉의 1933년 4월호에 기고한 글은 1933年 2月 18日 京城에서 쓴 것이며, 그의 작업은 1930年부터 1932年까지의 성과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京城帝大에 赴任 以後, 가장 時間을 많이 投資하여 한 것이 이 作業이다. 方法은 필드워크이

며, 필드워크는 英國에서 배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필드워크의 수준은 피상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秋葉는 朝鮮에 관한 연구는 帝國學士院의 支援金으로, 滿洲 것은 主로 外務省文化事業部의 支援金으로 研究를 하였다. 그 분기점이 1932년과 1933년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은 '植民'에서 '戰爭'으로 전환되는 구도 속에서 일제의 대륙침략과 만주국의 성립과 같은 國際政治的 變化에 適應한 것이다. 그 연구의 내용은 상당한 정도로 침략을 위한 사전 자원조사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들이었다. 1936년 9월 外務省文化事業部의 援助下에 實施된 滿蒙民族踏査旅行中, 興安南省王爺廟興安軍官學校의 蒙古人生徒를 相對로 실시한 質問法으로 蒙古人의 漢文化 影響關係를 整理한 적도 있었고,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협조한 기관들이 군대들이었음도 주목할 부분이다. 따라서 아키바는 연구보고서의 말미에 첨부하는 감사의 말씀을 王爺廟 陸軍特務機關과 興安軍官學校教官과 學生諸君에게 드린다고 되어 있다. 興安軍官學校는 滿洲國軍政部 直轄所屬으로 蒙古軍幹部養成의 目的으로 설치된 군사조직이었다. 1937年 3月에는 奉天南滿中學에서 質問紙法을 使用해서 滿洲人 學生 276名을 相對로 職業에 대한 社會的 地位 調査하기도 하였다(秋葉 隆 1938).

아키바가 만주의 국경지역 부근으로 자료수집을 나가기 위해서 Jochelson, Sternberg, Shirokogoroff 등의 文獻들 以外에 滿洲國治安部參謀司調査課 資料들을 基礎로 하여 踏査를 나갔고, 그의 연구는 일본군 최전선 군사작전의 일환인 선무공작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점들을 보인다. "1935년 가을 …오로촌 部落을 보았는데, …宣撫工作을 爲해서 興安嶺奧地의 8個所로부터 工作的으로 集合시켜놓은 큰 마을들"(秋葉 隆 1944: 348)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를 興安嶺으로 案內한 사람인 吉岡義人君도 當時 오로촌 宣撫工作에 專念하는 非常히 勇敢한 靑年이었다"(秋葉 隆 1944: 349)고 술회함으로서 인류학 조사와 선무공작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린 부분도 남기고

있다. "1936年 나의 研究室에 있는 泉 靖一 君이 單身 興安嶺의 山中에 나갔다"(秋葉 隆 1944: 348)는 아키바의 진술을 볼 때, 아키바는 자신의 제자인 泉도 선무공작과 합작된 인류학 연구 작업에 동원시켰음을 알 수 있다.

아키바는 경성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송석하와 손진태 그리고 이능화와 같은 조선인 민속학자들과의 교류도 갖은 바 있고, 일본에서 단기간 採訪 여행을 오는 사람들과 함께 多島海를 답사하기도 하였다. "友人宋錫夏"(秋葉 隆 1933b: 9)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아키바는 송석하에 대해서 꼭 "友"라고 표현하였다. 그 결과는 조선가면극에 대한 共著者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아키바는 송석하와 그의 학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6세의 나이차이와 제국대학 교수와 식민지 청년이라는 신분차이도 극복하고, 아키바와 송석하의 만남은 가면에서 비롯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조선민속학회의 창립에 아키바가 참가하게 된다. 1933년부터 대륙으로 눈을 돌린 아키바는 대륙의 샤머니즘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1936年 여름 아틱 뮤지엄(A.M.) 同人(宮本馨太郎, 小川 徹, 村上清文)들이 朝鮮 全南 荏子島, 水島, 落月島, 許沙島, 台耳島, 曾島 등의 섬들을 二泊三日 동안 민속 採訪하는 동안 아키바도 동행한 기록을 보인다. 採訪의 地域은 대체로 木浦港 西北方 海上으로 全南 務安郡에 屬한 곳이다(涉澤敬三 1939).

명색이 사회학교실의 교수인 아키바는 자신의 중심적인 연구영역이 사회인류학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다 더 사회학적인 연구자를 교실의 멤버로 초빙하였다. 농촌사회학의 전공자인 鈴木榮太郎가 사회학교실에 합세함으로서 아키바는 교실의 명칭에 걸맞는 인적구성을 시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스즈키가 인류학분야와 전혀 무관한 작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부기해야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일본농촌의 家神(屋敷神)에 관한 논문(鈴木榮太郎 1935)과 엠브리

(John Embree)의 일본농촌에 대한 사회인류학적인 모노그라프에 관한 논문(鈴木榮太郎 1940a)을 〈民族學研究〉에 발표한 적도 있다.

京城帝大에서는 大學本部新築移轉을 契機로, 舊 事務室階上二教室에 朝鮮土俗參考品陳列室을 만들어서, 小田, 今西, 秋葉 諸教授 等이 多年間 蒐集했던 民俗藝術의 參考資料에 土器, 陶器, 民間什器 等 약 一千點을 陳列하였다(博物館研究 1932: 7, 5卷 1號). "경성제대의 사회학연구실은 아키바를 중심으로 大正 15년 창립이래 민속자료 수집에 노력을 기울여서, 그 수가 1700점에 달한다. 지난 (1934년) 5월 2일 경성제대 창립10주년기념식 축하식에 그 일부 50점을 전시하였다. 주로 조선민속에 관한 것과, 약간의 만몽과 에스키모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社會學徒 8권 7호, 1934년 7월호). 에스키모의 물건들은 岡正雄의 협조를 구하여 덴마크 박물관에 조선민속품들을 주고 교환하여 구한 것들이다. 아키바는 "1942년 5월에 京城帝國大學陳列館 參與及主任"(島本彦次郎 1955: 315) 발령을 받았다. 그 진열관의 사실상 책임자인 셈이다.[22]

경성제대 사회학교실에서 아키바의 제자로 성장한 유일한 사람이 泉 靖一(1915-1971)이다.[23] 이즈미는 경성제대 학생시절 한라산 등

---

22) "參與"라는 직책은 일본 明治政府의 관직명으로 시작된 것인데, 그 소관사항은 상위의 議定職과 동일하고, 정체를 수립하고 법제를 제정하는 등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職이 薩長土肥 출신들에게 독점되면서, 관제개혁 시 1869년에 폐지되었고, 그 대신에 參議라는 직이 설정되었다. 그런데, 왜 京城帝國大學내의 직책에 "參與"라는 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23) 아키바의 강의 제목
1927년 社會學概論及演習(家族에 關한 文獻研究)
1928년 사회학개설, 민속사회학, 원시사회학
1933년 조선민속의 연구(주 2시간)
1934년 사회학개론, 사회학특수강의(원시사회), 사회학연습(P. Sorokin의

반 사고 후, 국문과에서 사회학교실로 轉科하였고, 이때가 1936년이었다. 秋葉로부터 말리노브스키의 '西太平洋의 遠洋航海'를 빌려서 읽었고, 秋葉는 "(부임 후) 10년만에 제자가 처음 생기게 되었네"라고 말하였다(泉 貴美子 1972: 32-33). 泉는 "濟州島" 연구의 논문으로 1938년 졸업과 동시에 사회학연구실에서 아키바의 개인적인 조수 역할을 하였고, 그 해 7월에 蒙疆學術調査에 참가하였다. 12월에 旭川7師團에 입대하여 하르빈으로 부임하였고, 1941년의 여름에는 참모본부에 배속되어서 남방적진상륙작전계획을 극비에 매월 연습하였다(泉 貴美子 1972: 74). 그는 1942년 1월 경성으로 돌아왔다. 문학부에 助手 자리가 없어서 이학부의 尾高 선생(산악부장)의 주선으로 조수가 되었다. 제대군인인 이즈미는 本部의 學生課에서 朝禮에 호령을 담당하고, 공습경보시에는 총감독을 하는 자리를 맡았다(泉 貴美子 1972: 78).

조선인 학생들의 징용이 시작되었고, 대학의 공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泉는 尾高朝雄 교수와 자신의 장래를 의논하였고, 尾高 교수가 太平洋協會로 편지를 내었다. 태평양협회에서는 陸軍司政官의 자리를 제안하였고, 그 일은 보루네오 다약 족에 대한 조사라고 하였다. 당시 다약 족의 반란이 있어서 죽을 지도 모른다고 했다. 泉는 사정관이라는 자리를 거절하였다. 1942년 가을 다시 태평양협회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뉴기니에 대규모 조사대가 파견된다고 하였다. 대장은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1935년 조선민속

1936년 사회학 개론, 원시사회(특수강의), 사회학강독연습

아키바가 강의를 통해서 기른 학생은 泉보다도 이른 시기에 경성제대를 다녔던 安藤喜一郎이 있는 것 같다(安藤喜一郎 1933: 4). 그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으로서 남방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였던 사람이다. 참고로 森谷(조교수)는 사회정책과 동양사회경제연구를 강의하였다. 당시 고고학관계는 모두 藤田亮策이 담당했다.

해군중장, 부대장은 東北帝大의 田山利三郎 교수, 대학이나 박물관의 지질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동식물학자와 농학자가 참가하는데, 6개 반으로 편성되었다. 泉는 본부의 간사와 인류학 조사를 담당하였다(泉 貴美子 1972: 82). 1943년 1월 18일 출발하였고, 학술대원 100명을 포함하여 모두 800명 이상의 인원이었다. 10개월 계약기간이었으나, 부친 사망 통보를 받고, 8월 19일 파라오로 이동하여 귀국하였다(藤本英夫 1994: 172). 뉴기니아 자원조사대 제3반 명부에 輸送을 맡은 奏任 대우로 참가한 泉 靖一(京城大學 學生主事)는 海軍省 南方政務部 事務囑託이 공식명칭이었고, 海軍省南方政務部第4分室에 자원조사보고를 시행하였다(11월 20일). 泉는 民族地理를 담당하여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佐竹義輔 1963: 106). 학술조사대 총무 역할을 泉가 맡았으며, 그는 계획에 있어서 비상하였다(波多江信廣 1968: xii)는 평가를 받았다.

泉는 1943년 12월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조수 직을 갖고 오로촌 조사를 하였고, 1944년 6월에 3차 몽강학술조사를 위하여 내몽고 오르도스로 나갔다. "1945년 6월 대륙자원과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학생 주사에서 조교수로 최초의 연구의 길에 들어섰다"(泉 貴美子 1972: 94). 그는 대륙자원과학연구소의 조교수로 중국의 화북지방으로 자료수집을 나갔다가 패전을 맞았다. 京城의 日本人世話會는 在外同胞援護會救療部로서 재조직되고, 부장은 今村 豊 교수, 泉는 會計課長으로 활동하였다(泉 貴美子 1972: 111). 第1引揚病院列車의 대장은 今村 豊 교수와 鈴木 清 선생이었고, 이즈미는 12월 18일 引揚되었다(泉 貴美子 1972: 105-107). 그후 1949년 4월 명치대 조교수가 되었고, 1950년 8학연 연합조사를 위해 대마도 답사를 나갔다. 1951년 11월 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에 문화인류학 교실을 창설하면서 조교수가 되었다. 1952년 9월 유네스코 일로 브라질에 파견되었고, 1954년 6월 외무성의 일로 브라질에 다시 파견되었다.

泉 靖一는 1938년 12월 八幡一郎의 紹介로 東京人類學會에 入會하

였으며(人類學雜誌 53(7): 364), 東京人類學會例會 第525回(1939年 3月 11日)에서 多田文男(地理學者)와 함께 '內蒙의 民俗風習見聞'을 發表하였다. 그 內容은 1938年 여름 京城帝國大學의 蒙疆學術探險에서 蒐集해온 資料였다. 이즈미는 그야말로 경성제대 사람이었다. 그의 부친(泉 哲)도 경성제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그도 경성제대를 학생으로서 다님과 동시에 경성제대의 조교수로 경성제대를 마감하였다. 학생시절에는 산악부의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경성제대의 문학서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泉의 어느 文獻에도 同時代에 朝鮮에서 學問的(民俗學的, 人類學的) 活動을 했던 宋錫夏와 孫晉泰에 對한 言及이 없다. 秋葉 隆(1888年生)는 두 사람에 대해서 言及할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朝鮮民俗學會의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였고, 〈朝鮮民俗〉의 마지막 호(3號, 1940年 發行)에 對한 編輯責任을 맡기도 하였다. 秋葉는 宋錫夏와 孫晉泰를 "學友"또는 "友人"이라고 指稱했고, 宋錫夏와 '朝鮮假面劇'이라는 冊을 共著했는데 紛失했다고 말하였다. 京城帝大 敎授인 秋葉는 朝鮮人 민속학자들과 密接한 關係를 가졌고, 그의 弟子인 泉는 朝鮮人 學者들과 關係를 가지지 않고 대륙 연구에 골몰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事實로 남는다.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경성제국대학의 설립목적과는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은 대륙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였다는 것이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실증된 바가 아키바와 이즈미의 학문적 연결과 계승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이 部分에서 注目하고 싶은 것은 泉 靖一와 朝鮮人 學者들(宋錫夏와 孫晉泰)의 無關한 것처럼 보이는 關係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可能性이 介入될 수 있다. 첫째, 泉가 한창 活動할 時期에 그가 朝鮮民俗學會와 關係를 갖었던 資料가 없는 것은 1930年代 중반이후 朝鮮民俗學會가 거의 活動停止 狀態에 들어갔기 때문일 可能性이 높다. 둘째, 朝鮮人 學者들은 徹底하게 朝鮮의 民俗現狀에 대해서만 硏究業績을 남겼다. 그러나 泉의 作業은 大體로 朝鮮에 關해서는 微弱하다.

그가 濟州島에 관한 硏究業績을 남겼다는 것은 濟州島를 朝鮮 以外의 朝鮮으로 看做했던 것 卽 朝鮮에서 成長한 泉가 他文化를 硏究하는 社會人類學의 傳統을 이어서 朝鮮의 他文化인 濟州島를 當地硏究 地域으로 看做했던 점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1945년 7月의 調査資料로 보이는 人口調査表는 現在 일본의 國立民族學博物館 圖書室에 保管되어 있는 泉 靖一의 資料 박스 속에 있다. 오르도스와 華北地方 農村의 人口調査表들로서 아직도 未分析.未作成.未發表의 生資料 狀態다. 泉는 8月 16日 京城에 돌아온 直後부터 踏査에서 가지고 온 資料를 整理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8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긴박하던 상황에 처해있었던 泉의 처지를 읽을 수 있다(佐口 透 1976).[24] 그러한 와중에서 8月 23日 泉는 중국으로부터

---

24) 佐口는 1945년 7월 民族硏究所 蒙疆班의 一員으로 派遣되어 "8월 15일 終戰으로 蒙疆班에 屬한 小野忍, 杉浦健一, 德永康元, 佐口 透 5명이 行動을 함께 하여 安東을 脫出, 8월 17일 京城에 避難하였다"(佐口 透 1976: 33). "8월 18일 午後, 帝大에 가서 泉 靖一氏와 만나서 便宜提供을 依賴....城大는 學生治安隊가 本部에서 出入을 嚴히 하여 通過는 보통 사람은 困難하였음...無警察狀態.."(佐口 透 1976: 41). "8월 19일, 帝大 本部에 가서 泉氏와 會談하여 總長과 會見하여 事情을 들었음"(佐口 透 1976: 42). "8월 20일, 城大에 가서 泉氏와 만났음"(佐口 透 1976: 43). "8월 21일, 泉氏와 만나서 今村豊博士와 함께 大學本部에서 泉氏가 가지고 온 北京의 브랜디를 마셨음. 그후 今村博士 宅에 가서 城大의 鈴木助敎授와 함께 酒宴. 蒙疆調査班에 관한 얘기를 하였고, 今村博士는 大東亞戰爭中의 日本人의 學術的 業績을 크게 出版하여 여러 나라에 알리는 文化運動으로서 必要한 일임을 主張하였음. 8월 22일 大學本部에서 泉氏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였음. 가까운 時日에 學內에서 大陸科學硏, 民硏 合同으로 人類學民族學座談會를 開催하자고. 8월 23일 今村先生과 함께 술을 마셨고, 泉氏의 斡旋으로 배를 타는 問題와 出發을 論議"(佐口 透 1976: 44). "8월 25일 午後3시부터 城大大陸科學硏 主催로 人類學民族學座談會를 열어서, 小野, 杉浦, 佐口가 出席하여 經歷을 소개하였음. 모인 사람은 모두 20여名이었음. 집에 돌아가서 여러 명이 모여서 술을 마셨음.

수집해온 資料를 分析하는 過程에 있었다. 敗戰과 植民地의 解放 그리고 사회적 혼란과 신변의 위협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硏究者로서 自身이 蒐集한 資料를 조용하게 分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泉의 學者的인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確實한 場面이다.

泉에게 '안데스學의 創始者'(大貫良夫 1988)라는 別名이 붙는 것은 問題가 있다. 그러한 別名을 붙이는 後學의 世代的인 問題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풍기는 이미지는 泉의 學問的 歷程을 相當한 程度로 歪曲할 수 있는 餘地가 있다. 왜, 泉가 안데스 考古學을 硏究하려는 생각을 하고 實踐에 옮겼는지는 상당히 偶然한 因緣으로 始作된 것이다. 그 偶然한 過程 속에 어떤 論理的 理由가 包含되어 있을까 하는 問題를 생각해보는 것은 지나친 類推에 依存할 可能性이 있다. 다만, 그가 페루의 日系事業家를 만났고, 그 事業家가 泉의 作業을 처음으로 支援하고 나섰다는 事實만은 分明하다. 泉는 考古學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의 學者的 修業過程에서 한 번도 考古學的 發掘이라는 作業을 해본 公式的인 記錄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그가 '나와바리'(繩張)를 重視하는 日本學界에서 地域과 分野가 엄청나게 다른 안데스 考古學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點에 대해서는 生産的인 結論이 없더라도 愼重하게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

경성제대에서 체질인류학을 주도한 사람은 해부학교실의 今村 豊

杉浦씨가 술에 취해서 유리를 깼음"(佐口 透 1976: 45). "8월 27일 밤, 泉氏댁에 招聘되어 브랜디를 마셨음. 우리 三人은 今村敎授夫妻, 朝日支局員坂井氏 등과 만났음....8월 28일 우리들은 泉氏의 손을 빌어서 쌀 한말을 120원에 샀음)"(佐口 透 1976: 46). *여기에서 泉의 조교수 승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泉의 조교수 직무수행 시작시점을 6월 5일에 비중을 두는 간접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8월 29일 大學에 가서 泉氏와 만났음. 陳列館에 가서, 朝鮮土俗資料, 뉴기니아 土俗品을 참관하였음"(佐口 透 1976: 47). "9월 1일 泉氏의 집에 갔음"(佐口 透 1976: 49). 日本으로 出發準備.

(日本人類學會 評議員) 교수다. 興安警備軍과 南警備軍의 主隊와 支隊의 各所에서 資料蒐集을 실시할 때, "日滿軍部 여러분들의 好意로 計測에 多大한 便宜를 얻었다 … 兒玉中將, 梶井少將, 松室大佐, 寺田, 河崎, 下永三中佐, 泉少佐, 原田, 嘉悅, 藤卷軍醫正, 기타 (여러분들에게) … 감사의 뜻을 표한다"(今村 豊 1934: 726)고 했다. 당시 체질인류학적인 자료의 수집 즉 인체계측뿐만 아니라 유골의 수집을 위해서는 군대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 같다. 특히 접적지역에서는 더욱더 그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京城帝國大學 滿蒙文化研究會의 一環으로 1935年 여름 北滿에서 일개월간 滿洲族, 索倫族, 達呼爾族, 額魯特族, 鄂倫春族, 錫伯族 등을 대상으로 體質人類學 調査를 하였으며, 1941년 여름 1개월간 吉林 滿洲旗人의 部落調査도 담당하였다. 1942年 8月 滿洲國間島省安圖縣地方의 現地調査를 실시하였고, 1943년 여름, 黑河下流의 다호-루와 滿洲人에 관한 調査도 하였다. 1944년 여름 경성제국대학의 法文學部와 理工學部의 同僚를 포함한 약 20명의 調査隊長으로서 蒙疆包頭, 二渡黃河를 건너 오르도스 地域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接敵地區인 이 곳에서 그는 漢蒙接觸地帶에서 出生한 漢人에 대한 調査를 하였다. 1942년도에 발행된 赫哲族에 관한 체질인류학적 조사보고들(堀井五十雄 · 正木正明 · 宮本 潔 1942 & 鈴木 誠 · 平野伍吉 1942)도 사실상 모두 今村 豊의 引導로 이루어진 調査의 결과물들이다.

3) 두 學派의 比較

경성제대의 재외연구원으로 유럽에 갔던 아키바는 일본사회학회로 자신의 근황을 편지로 보내었고, 2년 뒤에 동일한 방식으로 유럽으로 갔던 대북제대의 우츠시가와는 동경인류학회로 소식을 전해왔다.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놓고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본령에서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점을 대변해주는 대목이다.

우츠시가와와 아키바의 유럽 유학에 깃든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1) 제국대학의 교관확보, 2) 식민주의 실천으로 집약되는 일종의 통과의례 절차였다. 19세기말부터 문부성에서 선진을 배우라는 통과의례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3) 아키바와 비교하여 우츠시가와는 이미 큰 학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아키바에게는 선진 유럽을 배우라는 것이었지만, 우츠시가와에게는 미국인류학이 아니라 유럽인류학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日帝를 위해서는 미국문화인류학보다는 유럽사회인류학이 더 필요했던 것이 일본제국의 입장이었다. 그것은 식민주의와의 관련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Asad 1973 참조).

두 사람이 각자의 제국대학에서 전개했던 학문의 성격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출발에서부터 대북제대의 토속학교실과 경성제대의 사회학교실은 서로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고, 두 교수는 당대 일본의 학계에서 각자의 지역적인 역할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 그들이 제자들은 두 교수의 오리엔테이션을 더욱더 확장시킨 면을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1928년) 臺北에 新設된 同帝國大學은 文政學部에 人種學 土俗學의 新講座가 設置되어 3월 中旬에 歐洲見學으로부터 歸朝한 移川子之藏 氏가 同帝國大學敎授로 任命됨과 동시에 그 講座를 擔當하였다. 從來 東京帝大에 人類學이 한 講座 있었는데, 이번에 臺北帝大에 同一한 人類學에 屬하는 한 講座의 設置를 보이면서 我國 人類學에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된다"(人類學雜誌 43권 7호, 323페이지, 1928년 7월호). 이미 1926년에 京城帝大 法文學部의 宗敎及社會學敎室에 社會人類學이라는 講義가 施行되었던 것과는 약간의 意味上 差異가 있다. 대북제대의 토속 · 인종학연구실은 내용상 하나의 학문분야(그것이 민족학이든 인류학이든 간에)이지만, 경성제대의 경우에는 종교학과 사회학이 하나의 연구실을 만든 것이다. 물론 사회학의 주 내용은 아키바의 존재에 의해서 사회인류학의 그것이지만, 사실상 赤松와 秋

葉는 샤마니즘 연구에 공통적인 흥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대북제대의 경우, 미국 문화사학파의 전통을 이은 移川가 영국과 유럽의 사회인류학적 전통을 만났고, 대북제대에서 실천한 것은 문화인류학은 물론 체질인류학과 고고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류학이었다. 경성제대의 경우, 동경제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秋葉가 영국유학으로 사회인류학을 접하면서, 좁은 의미의 인류학 즉 사회인류학(민속학 포함)만을 시도했다. 京城帝大에서는 그 教室 즉 "宗教及社會學教室"의 教授는 赤松였고, 秋葉는 助教授로 赴任하면서, 講座制 下에서 人類學 分野의 獨立된 講座를 制度上 設置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물론 社會學이라는 講座도 獨立的으로 設置될 수 있는 狀況이 아니었다. 그 時間은 後日 秋葉가 教授로 昇進하면서 可能해졌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內容은 社會人類學 내지 人類學의 講義와 教授 및 研究가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따라서 臺北帝大에 "土俗·人種學講座"가 設置된 것은 當時 日本領土 內에서는 臺北帝大가 유일한 경우였다고 말할 수 있다.

移川의 제자인 馬淵와 秋葉의 제자인 泉의 學部卒業論文 比較에서 前者는 具體的인 主題로서 人類學의 正統 라인에 있는 親戚研究를 하였고, 後者는 마을을 中心으로 모노그라프 形式의 民族誌를 作成하였다. 馬淵는 主題를 中心으로 하여 文獻을 통해서 資料를 蒐集하였고, 泉는 地域을 中心으로 한 現地踏査를 통하여 蒐集한 資料를 使用하였다. 學部卒業論文에서부터 純粹한 "國産"인 두 사람의 人類學을 하는 스타일은 상당히 달랐지만, 主題와 地域을 分明히 한 두 사람의 作業들은 傳統的인 人類學의 本領을 日本人類學界 內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礎石이 되었음은 否認할 수 없다. 後日 두 사람이 日本人類學界의 巨木으로 자라나는 過程은 植民地의 帝國大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할 部分이다.

학계를 주도했던 학술논문집도 두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대만에서 발행된 〈南方土俗〉과 〈民俗臺灣〉을 조선에서 발행되었

던 〈朝鮮民俗〉과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朝鮮民俗〉은 朝鮮人이 主導하고 日本人 學者들이 參與하였고, 後日 日本人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 활동상황은 상대적으로 아주 약한 모습을 남기고 있다. 〈南方土俗〉(후일 〈南方民族〉으로 개칭)과 〈民俗臺灣〉은 日本人이 대학을 중심으로 主導하였고, 一部의 臺灣人이 參加하였다. 양자는 풍부한 업적을 생산하였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民俗臺灣〉의 創刊: 東都書籍株式會社臺北支店을 發行所로 하여 岡田 謙, 金關丈夫, 黃得來, 須藤利一, 陳紹馨, 萬造寺龍 諸氏가 編輯에 協力한다. … 當分間은 月刊 32面을 目標로 … 創刊號를 發行한다" (民族學研究 1941년 12월 발행: 436-437). 月刊 發行을 目標로 했다는 것은 대단한 意慾이다. 그만큼 研究陣과 執筆陣이 確保되어 있다는 점을 反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民俗臺灣〉은 閉鎖的이 아니라 상당히 開放的인 性向을 갖고 있다는 評價가 可能하다. 陳紹馨은 臺北帝大土俗人種學教室 所屬이었다. 黃得來와 陳紹馨이라는 臺灣出身의 研究者들이 金關丈夫를 도와서 〈民俗臺灣〉의 創刊과 發行에 參與하였다는 事實은 朝鮮의 狀況과 比較해볼 때 興味있는 점을 指摘할 수 있다. 朝鮮人 研究者(宋錫夏와 孫晉泰 等)들을 中心으로 하고 日本人 研究者(秋葉 隆과 今村 暎 等)들이 參加하여 組織된 朝鮮民俗學會(1932년 4월 창립)와 그 機關誌로 〈朝鮮民俗〉이 創刊되었다가(1933년 創刊) 後日 日本人 研究者들에 의해서 獨占 및 廢刊되는 狀況과 對照的인 모습을 보인다. 臺灣의 〈民俗臺灣〉에 比해서 朝鮮의 〈朝鮮民俗〉은 比較的 閉鎖的이었고, 執筆陣도 대단히 限定되어 있었다. 季刊을 目標로 始作했던 〈朝鮮民俗〉은 7년 동안에 3호 밖에 나오지 않았고, 創刊號의 發行人은 朝鮮人인 宋錫夏였으나, 마지막 3호(1940年 發行)는 發行人이 秋葉 隆으로 바뀌어 있다(全京秀 1999).

1941년에 創刊하는 〈民俗臺灣〉과 1940년에 이미 廢刊된 〈朝鮮民俗〉을 時代的 狀況이라는 次元에서 比較해보고자 한다. 이미 滿洲事

變이나 中日戰爭(1937년) 그리고 太平洋戰爭이 1941년에 勃發하면서, 日本帝國은 온통 戰爭狀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1941년에 臺灣에서는 상당한 水準의 學術誌인 〈民俗臺灣〉이 創刊되어서 戰爭途中에도 活潑하게 學問的인 活動을 展開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 臺灣에서는 人類學 分野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學問分野에서 廣範圍하게 活潑한 活動을 展開한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오히려 人類學 分野에서는 그 이전보다도 훨씬 活動의 範圍가 넓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程度는 깊어짐을 보이고 있다. 새롭게 편입되는 占領地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중심으로 인류학적 안목은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朝鮮에서는 1940년 頃이 되면, 거의 모든 學問的 活動은 停止狀態로 들어갔다. 그 實例로 朝鮮民俗學會와 震檀學會 等의 活動이 停止당한 것이다. 비단 人類學 分野에서 뿐만이 아니라 體系的으로 學問活動의 停止狀況이 온 것은 構造的인 問題였다고 解釋할 수밖에 없다.

(상기 논문의 5장, 6장, 7장 부분은 비교문화연구 8집 2호에 게재됩니다.)

참고문헌

全京秀
1999 韓國人類學 百年. 서울: 일지사.

鄭圭永
1999 "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 15년 전쟁 하 경성제국대학의 대륙연구", 教育史學研究 9: 21-36.

赤松智城
1926 "古代文化民族からマナの觀念に就いて", 民族 1(3-6).
1929 "北方民族の巫術の起源に就いて", 宗教研究 新6(3): 79-88 & 同 6(5): 95-104.
1935 "滿洲旗人の家祭", 民族學研究 1935年 第2號: 1-9.

赤松智城 · 泉 靖一
1938 "赫哲族調查報告", 民族學研究 第4號: 12-33.

秋葉 隆
1927 "博物館巡禮", 民族 2(6): 123-128.
1928a "博物館巡禮", 民族 3(6)까지 連載한 것.
1928b "寡雁考: 朝鮮婚姻風俗の一研究", 民族 3(6): 63-86.
1928c "女國の多夫婚姻に就いて", 社會學雜誌 51: 1-26.
1929a "女人國の神聖婚姻", 宗教研究 新6(2): 1-14.
1929b "'Intenstive Method'に就いて", 社會學雜誌 57: 1-11.
1931 "朝鮮の巫稱に就いて", 青丘學叢 3: 192-194.
1932a "書評: 日本神話の研究(松本信廣 著)", 青丘學叢 10: 154.
1932b "踴る巫と踴らない巫: 朝鮮における巫の一分類", 宗教研究 新 9(3): 27-41.
1933a "巫女の家", ドルメン 1933年 4月號: 116-118.

1933b "假面を祀", ドルメン 1933年 1月號. 9-11.
1934 "滿洲薩滿教の家祭", 宗教研究 新11(1): 112-128.
1935a "薩瑪の巫祭と大仙の巫術: 滿洲巫俗踏査報告", 民族學研究 1935年 第2號: 15-35.
1935b "滿洲シャーマン見學メモ", ドルメン 4(2): 52-57.
1936 "オロチョン・シャーマニズム: 大興安嶺東北部オロチョン族踏査報告(2)", 民族學研究 1936年 第4號: 30-42.
1937 "蒙古人と漢文化: 文化傳播の一統計", 青丘學叢 27: 1-30.
1938 "滿洲青年の職業意識", 社會學 5(秋季號): 288-290. (日本社會學會年報).
1939 "多島海巡航記", 朝鮮多島海旅行覺書. アチック・ミューゼアム編. 東京: アチック・ミューゼアム. pp.1-7.
1944 "オロチョン族の社會と文化", 社會學研究 1: 342-355.
1949 "巫と火: 朝鮮シャーマニズムにおける聖火の行事", 民族學研究 14(1): 13-16.

鈴木榮太郎

1929 "農村社會學研究法", 社會學雜誌 58: 1-23.
1935 "屋敷神考", 民族學研究 第2號: 72-87.
1940a "社會人類學上の研究としてのエンブリー氏の'スエ村'と日本農村社會學", 民族學研究 第4號: 47-67.
1940b "美國農村社會學の事", 社會學 7: 370-373. (日本社會學會年報).

中生勝美

1997 "民族研究所の組織と活動: 戰爭中の日本民族學", 民族學研究 62(1): 47-65.
1999 "地域研究と植民地主義人類學", 地域研究論集 2(1): 19-36.

古野直也

1991 臺灣軍司令部 1895-1945. 東京: 國書刊行會.

古野清人

1943 "南方圈の宗教", 南方年鑑(昭和18年版). 東京: 南方年鑑刊行會.

匿名

1939 "沿革", 創立三十年記念論文集, 臺灣總督府博物館編. 臺北: 臺灣博物館協會. pp.3-7.

匿名

1943 "占領地司政官", 南方情勢 75: 5.

岡 正雄(譯)

1943 メンギーン著 石器時代の世界史(上). 東京: 聖紀書房.

馬淵東一

1942 "インドネシア農耕民と土地", 南方亞細亞の民族と社會, 滿鐵東亞經濟調查局〈新亞細亞〉編輯部. 東京: 大和書店. pp.135-151.

1943 "南方圈の社會", 南方年鑑(昭和18年版). 東京: 南方年鑑刊行會. pp. 155-182.

1947 "移川先生の追憶", 民族學研究 12(2):

1973 "〈南方土俗〉景印本刊行에 寄 " 南方土俗(南方民族) 影印本. 臺北: 東方文化書局景印. pp.2-8.

馬淵 悟

1987a "臺灣と歷史: 解說", 宮本延人, 瀨川孝吉, 馬淵東一, 臺灣の民族と文化. 東京: 六興出版. pp.207-213.

1987b "臺灣の人類學史: 解說", 宮本延人, 瀨川孝吉, 馬淵東一, 臺灣の民族と文化.東京: 六興出版. pp.236-239.

1997 "宮本延人", 臺灣原住民研究 2

大川正彥

1987 "植民地政策: 解說", 宮本延人, 瀨川孝吉, 馬淵東一, 臺灣の民族と文化. 東京: 六興出版. pp.214-218.

黑澤隆朝

1973 臺灣高砂族の音樂. 東京: 雄山閣.

移川子之藏

1919 "比律賓北呂宋 イフガオ族に就いて", 人類學雜誌 34(7): 221-234.

1919. 2. "南海蠻夷小論" 1919년 2월경에 타이와 캄보디아의 沿岸을 항해 중에 쓴 글임에 분명. 9페이지 짜리. "廣い人類學の見地から南海の人種について極めて包括的に敘述する". 주 내용은 體質人類學的인 類型別 分類에 기초한 것.

1927a "歐洲人類學雜記", 人類學雜誌 42(4): 146-154.

1927b "北歐의 旅", 民族 3(1): 96.

1930 "臺灣東部阿眉族の稱呼パンジャに關する二三の考察", 民俗學 2卷 3號: 149-159.

1934 "Patuを繞く太平洋文化交涉年代と臺灣發見の類似石器", 臺北帝大史學科研究年報 第1輯.

1935a "ローランド・ディクソン教授の逝去", 南方土俗 1935년 7월호, p.88.

1935b "故ローランド・バレッジ・ディクソン教授, Prof. Roland Burrage Dixon(1873-1934)", 民族學研究 1935年 7月 pp.156-163.

1938 "和蘭ハーグ國立文書館所藏臺灣關係文書目錄",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研究年報 5: 1-76. 1937年 發行.

1939a "姓名としての高砂族個人.家族.氏族名", 創立三十年記念論文集, 臺灣總督府博物館編. 臺北: 臺灣博物館協會. pp.323-336.

1939b "國際人類學.民族學學術會議と想出", 民族學研究 5(2): 118-124.

1942 "南洋の民族移動", 南方亞細亞の民族と社會, 滿鐵東亞經濟調查局〈新亞細亞〉編輯部. 東京: 大和書店. pp.11-36. *서양문헌

들을 중심으로 소개.

1943a "民俗研究の現實性", 民俗臺灣 20: 1.

1943b "南方民族の社會", 西南太平洋, 每日新聞社 編. 東京: 每日新聞社. pp.16-31.

宮本延人

1948 "戰後の臺灣民族學界を省", 民族學研究 13(4): 425-428.

1982a "私の臺灣紀(1)", 松前文庫 30:

1982b "私の臺灣紀(2): 土俗學人種學研究室의 建設", 松前文庫 31:

1983a "私の臺灣紀(3)", 松前文庫 32:

1983b "私の臺灣紀(5)", 松前文庫 34: 33)

1983c "金關丈夫教授と私", エトノス 21: 41-45.

1985a 臺灣の原住民族: 回想. 私の民族學調査. 東京: 六興出版.

1985b "私の臺灣紀(13)", 松前文庫 42:

1985c "私の臺灣紀(14)", 松前文庫 43:

1985d 臺灣の原住民族: 回想.私の民族學調査. 東京: 六興出版.

1988 日本統治時代臺灣における寺廟整理問題. 奈良: 天理教道友社.

宮本延人, 瀨川孝吉, 馬淵東一

1987 臺灣の民族と文化. 東京: 六興出版.

川平朝申

1983 "追憶 金關丈夫博士", エトノス 21: 53-55.

倉田 勇

1992 "馬淵東一", 社會人類學年報 18: 149-168.

岡田 謙

1936 "原始社會における社會關係",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哲學科研究年報第3輯.

杉浦健一

1941 "民族學と南洋群島統治", 大南洋: 文化と農業, 太平洋協會 編. 東京: 河出書房. pp.173-218.

清水昭俊

1995 "民族學と文化人類學: 學會の改稱問題", 民博通信 70: 8-27.

神田喜一郎.移川子之藏

1938 "厦門大學文化陳列所 支那明器の保管", 博物館研究 11(10): 63.

臺灣總督府

1936 臺灣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 臺北: 臺灣時報發行所.

1939 臺灣事情(昭和14年版). 臺北: 臺灣總督府.

臺灣教育會

1939a 臺灣教育沿革誌. 臺北: 靑史社.

1939b 臺灣教育. 臺北: 臺灣教育會.

大林太良

1988 "馬淵東一教授を悼む", 民族學研究 53(3): 329-330.

鹿野忠雄

1944 "紅頭嶼ヤミ族と飛魚, 附 比律賓バタン諸島의 飛魚漁", 平野義太郎 編, 太平洋圈(民族과 文化 上卷). 東京: 河出書房. pp.503-573.

山崎柄根

1992 鹿野忠雄. 東京: 平凡社.

山路勝彦

1999 "'梁山泊'の人類學, それとも?: 臺北帝國大學土俗人種學研究室", 關西學院大學社會學部紀要 83: 73-89.

金關丈夫

1941 "皇民化と人種の問題", 臺灣時報 23(1): 24-29.

네즈 마사시

1983 "〈ドルメン〉", エトノス 21: 34-37.

中村 哲

1983 "金關丈夫先生像", エトノス 21: 39-40.

宋文薫
1983 "金關丈夫先生", エトノス 21: 49-51.

佐口 透
1976 "1945年満鮮紀行: 終戰前後の日本海域", 日本海文化 3: 33-51.

角田文衛
1983 "金關丈夫先生", エトノス 21: 72-73.

松倉鐵藏
1926 臺灣博物館の手引. 臺北: 臺灣總督府博物館.

尾崎秀眞
1939 "總督府博物館の思出", 創立三十年記念論文集, 臺灣總督府博物館編. 臺北: 臺灣博物館協會. pp.373-375.

尾高朝雄
1939 "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隊の成立と探險旅行の經過", 蒙疆の自然と文化: 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隊報告書,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東京: 古今書院. pp.3-17.
1940 "國家の目的と大陸經營", 大陸文化研究,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東京: 岩波書店. .1-37.

速水 滉
1940 "序言", 大陸文化研究,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東京: 岩波書店. pp.1-5.

今村 豊
1934 "內蒙古人計測旅行雜記", ドルメン 3(10): 725-729.
1935a "珍本 雞林醫事", ドルメン 4(1): 58-60.
1935b "朝鮮石器時代人", ドルメン 4(6): 188-192.
1945 "設立趣旨", 大陸資源科學研究所要覽(昭和20年). 京城: 大陸資源科學研究所.

堀井五十雄・正木正明・宮本 潔
1942 "赫哲族調查報告", 人類學雜誌 57(9): 377-385.

鈴木 誠 · 平野伍吉
1942 "赫哲調査報告", 人類學雜誌 57(4): 147-154.

長谷部言人
1944 "人種", 大東亞民族誌, 東亞經濟懇談會 編. 東京: 鱒 書房. pp.37-85.

川村 湊
1996 '大東亞民俗學'の虛實. 東京: 講談社.

大貫良夫
1988 "泉 靖一: 日本アンデス學の創始者", 文化人類學群像: 日本編, 綾部恒雄 編. 京都: アカデミア出版會. pp.411-432.

島本彦次郎
1955 "秋葉隆博士の生涯と業績", 朝鮮學報 9: 303-322.

岩崎繼生
1933 "朝鮮民俗學界の展望", ドルメン 1933年 4月號. pp.12-115.

涉澤敬三
1939 "小序", 朝鮮多島海旅行覺書. アチック · ミューゼアム編. 東京: アチック · ミューゼアム. pp.1-3.

佐竹義輔
1963 西イリアン記. 東京: 廣川書店.

波多江信廣
1968 西イリアンの思い出. 東京: 川島書店.

泉 貴美子
1972 泉靖一と共に. 東京: 芙蓉書房.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纂委員會
1974 紺碧遙카니 —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東京: 耕文社.

藤本英夫
1994 泉 靖一傳. 東京: 平凡社.

安藤喜一郎
1933 南洋風土記. 東京: 拓植公論社.

柳田國男研究會
1988 柳田國男傳. 東京: 三一書房.

石田英一郎
1949 "編輯後記", 民族學研究 14(2): 83.
1970 "民族學から文化人類學へ", 石田英一郎全集第四卷. 東京: 筑摩書房. pp.14-20.

小山榮三
1944 南方建設과 民族人口政策. 東京: 大日本出版株式會社.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1: 455-457, 1934年 發行.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2: 421 & 423-424, 1935年 發行.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3: 382, 1936年 發行.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4: 581-582, 1937年 發行.
南方土俗 4권4호 pp.36-37. 1938년.
南方土俗 5권 1,2호: 71.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1: 451-455, 1934年 發行.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2: 421, 1935年 發行.

江口圭一
1991 十五年戰爭小史. 青木書店.

江上波夫
1943 滿洲國の諸民族概況と目下重要な民族問題. 東京: 和光社.

蒙疆新聞社
1941 蒙疆年鑑.

南方研究會,
南方情勢 69호(1942년 7월), 南方情勢 75호(1943년 1월),

南方情勢

81호(1943년 7월), 南方情勢 82호(1943년 8월). 南方情勢社. 社會學徒 8卷 7號, 1934年 7月號, 社會學徒社 發行.

許木柱

1993 "臺灣民族學研究的回顧與展望", 民族學報(國立政治大學) 20: 143-150.

Asad, Talal

1973 *Anthropology and the Colonial Encounter*. London: Ithaca.

Boas, Franz

1919 "Scientists as Spies", *Nation* 1919年 12月 12日字.

Gould, Stephen Jay

1989 *Wonderful Life: The Burgess Shale and the Nature of History*. New York: W.W.Norton.

Malinowski, Bronislaw

1922(1961)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New York: E.P.Dutton.

Memmi, Albert

1967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Boston: Beacon Press.

Nakao, Katsumi

1999 "Japanese Colonial Policy and Anthropology in Manchuria", *Anthropology and Colonialism in Asia and Oceania*, ed. by Jan van Bremen & Shimizu Akitoshi. Surrey: Curzon. pp. 245-265.

Nelson, Hank

1980 "*TAIM BILONG PAIT*: The Impact of The Second World War on Papua New Guinea", *Southeast Asia Under Japanese Occupation*, ed. by Alfred W. McCoy. New Haven: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 Studies. pp.204-220.

Shimizu Akitoshi

1999 "Colonialism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Anthropology in Japan", *Anthropology and Colonialism in Asia and Oceania*, ed. by Jan van Bremen & Shimizu Akitoshi. Surrey: Curzon. pp.115-171.

Thomas, Nicholas

1994 *Colonialism's Culture: Anthropology*, Travel and Govern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Utsurikawa, Nenozo

1921 "Demon Design on the Bornean Shield: A Hermeneutic Possiblity", *American Anthropologist* 23: pp.138-148.

van Bremen, Jan & Shimizu Akitoshi

1999 *Anthropology and Colonialism in Asia and Oceania*. Surrey: Curzon.